

2003 學年度

碩士學位(Th. M.) 請求論文

福音과 律法에 대한 研究
-루터, 칼빈, 샌더스 중심으로-

總神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 專攻

文 洪 先

福音과 律法에 대한 研究
-루터, 칼빈, 쉰더스 중심으로-

指導教授 徐 哲 源

이 論文을 碩士學位(Th.M)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2月 日

總神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 專攻

文 洪 先

文洪先의 碩士學位 (Th. M.)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徐哲亨 印
審査委員 崔弘錫 印
審査委員 이 상원 印

2003年 12月 日

總神大學校 大學院

목 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1	
2. 연구방법과 범위 / 4	
II. 종교개혁자 루터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	6
1. 루터 신학에 있어서 복음과 율법의 중요성 / 6	
2. 복음과 율법에 대한 루터의 이해 / 9	
(1) 복음과 율법의 구별 / 9	
(2) 크리스천의 자유 / 10	
(3) 능동적인 의와 수동적인 의 / 12	
3. 율법과 행위에 대하여 - 율법폐기론자들과의 논쟁 중심으로 / 14	
4. 소결론 / 19	
III. 종교개혁자 칼빈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	20
1. 율법에 대한 칼빈의 이해 / 21	
(1) 언약법으로서의 율법 / 22	
(2) 종교의식으로서의 율법 / 24	
2.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 24	
3. 칼빈에 있어서 율법의 용도 / 26	
(1) 첫째용도: 죄를 인식케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으로서의 기능 / 27	
(2) 둘째용도: 악인이 두려움 때문에 악행을 그만두도록 저지하는 기능 / 29	
(3) 세 번째용도: 신자들에게 순종할 규범 / 30	

IV. 현대 신학자 샌더스(E. P. Sanders)의 복음과 율법의 이해 31

1. 유대교적 율법 이해 - 언약적 신율주의 / 33
2. 율법의 목적 / 35
3. 율법은 이루어야 한다. / 39

V. 바울 서신 주석 비교 41

1. 갈라디아서 3장 / 41
 - (1) 샌더스의 이해 / 41
 - (2) 루터의 이해 / 45
 - (3) 칼빈의 이해 / 49
 - (4) 소결론 / 51
 - (a) 갈라디아서의 문제들 / 52
 - (b) 갈라디아서 3:10-12 / 53
2. 로마서 7:7-13 / 55
 - (1) 샌더스의 이해 / 55
 - (2) 루터의 이해 / 57
 - (3) 칼빈의 이해 / 58
 - (4) 소결론 / 60
3. 로마서 9:30-10:13 / 61
 - (1) 샌더스의 이해 / 61
 - (2) 루터의 이해 / 65
 - (3) 칼빈의 이해 / 67
 - (4) 소결론 / 69

VI. 결 론 71

참고문헌 / 73

국문 요약

복음과 율법에 대한 연구

- 루터, 칼빈, 샌더스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문 홍 선

I. 서론

최근에 들어와서 바울과 율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인 견해를 저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유대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특별히 샌더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 했다는 기존의 견해를 뒤집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도 언약의 백성이므로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언약적 신율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언약적 신율주의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므로 구원을 얻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행위가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바로 이런 샌더스의 견해를 루터와 칼빈과 비교하여 올바른 율법관을 조명하려 한다.

II. 종교개혁자 루터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

복음과 율법은 루터에게 있어서 철저히 대립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루터는 복음과 율법이 상호 모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율법의 죄를 인식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효력이 전제 되어지지 않고는 그

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즉 복음을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의 신학의 중심에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가 서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후에 율법의 이해는 복음과 율법의 구별과 대립의 긴장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져 왔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통일성이라기보다는 복음과 율법의 대립 속에서 통일성을 강조한 것이 루터의 율법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루터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역사에 기리 남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 시대에 선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그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대립과 구별에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후에도 구원의 과정에 율법이 개입하는 논리에 이르게 한다.

III. 종교개혁자 칼빈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

칼빈은 복음과 율법을 구별과 대조로 보는 루터와는 달리 복음과 율법을 비록 그 형식과 양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 실체에 있어서는 본질상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본다. 칼빈은 복음과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칼빈에게 율법은 복음을 그림자로서 계시하였고 복음은 율법의 실체로서 율법이 손가락질 하던 것의 전부였다.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하여 말하고 특히 세 번째 기능인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IV. 현대 신학자 샌더스(E. P. Sanders)의 복음과 율법의 이해

현대에 들어와서 바울신학의 분야에서 놀랄만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샌더스는 아주 독특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샌더스는 유대교의 율법

을 언약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의견을 전개하고 있다. 샌더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을 이루는 것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율법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샌더스는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믿음으로 되는 것을 언급하지만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샌더스는 바울의 딜레마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진실로 딜레마에 빠진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또한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샌더스 일 것이다. 샌더스는 역시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의를 얻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므로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샌더스가 말하는 언약적 신율주의가 언약백성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하므로 칼빈이 말하는 신앙규범으로서의 율법을 지키고 비슷해 보이나, 이들의 전제가 확연히 다를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샌더스는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셨다는 것이고, 칼빈은 인간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니 출발부터 다른 것을 발견한다.

V. 바울 서신 주석 비교

1. 갈라디아서 3장

샌더스는 갈라디아서의 문제를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 했던 유대인들과의 대립으로 보지 않았다. 그 결과 그가 주장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정황을 잘 살펴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입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

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종 주장하고 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한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만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율법을 그러나 루터는 아주 단호하다. 왜냐하면 루터에게 이 문제는 자신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핵심이 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터는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믿음이 먼저 오지 않고는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한다. 칼빈도 역시 그의 주석에서 루터와 같이 이 구절의 핵심을 '의의 근거'에 두면서 율법을 성취할 힘이 인간에게 없으며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결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샌더스가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하던 '누구든지'와 '온갖'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율법의 저주아래 있고 율법의 '온갖' 곧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2. 로마서 7:7-13

샌더스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해 볼때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없다고 말하며 딜레마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죄의 작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죄가 율법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여 율법과 죄의 연관성을 깨트리면서 율법의 의가 꼭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율법을 지켜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루터에게 율법은 어린 시절 즉 하나님의 의(율법)이 오기 전에 있던 죄의 잠재성을 폭로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런 이해는 2장에서도 언급한 칼빈과 루터의 차이점인 루터는 율법을 구원의 한 단계로 보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칼빈은 율법의 죄의 원인이 아님을 위의 인용에서 분명히 하고 또한 죄의 근원은 모두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므로 칼빈은 율법이 부패한 본성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부패한 본성의 지식을 알게 해준다고 말하므로 샌더스

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본다.

3. 로마서 9:30-10:13

샌더스는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못 외적으로 행했기 때문이지 만약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의지하였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도 구원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열심과 죄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므로 믿음과 율법을 구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자기 모순적이 요소가 있다. 샌더스의 언약적 신을주의가 바로 언약백성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견해인데 다시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외적으로 즉 행위로 지켰다고 말하므로 자기모순에 빠졌다. 또한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역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열심과 죄를 절대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본다. 그리고 칼빈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에 전력을 기울여 구원받으려 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열심이 바로 죄라고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바랄 수 없다고 보았다.

VI. 결 론

루터의 율법관은 복음과 율법의 구별과 대립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고 칼빈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는 넓은 의미의 율법법관으로 이해하면서 구원사적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샌더스는 율법을 유대교적 율법 이해인 '언약적 신을주의'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했다. 샌더스가 새로운 안목의 해석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견해는 율법을 지킴이 여전히 가능하고, 율법을 지킴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무름'을 위해 요구된다

고 말하므로 신약시대에 언약아래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구원에 행위를 더하려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견해라고 할 것이다.

I.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종교개혁의 핵심을 말한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만으로”(Sola Fide), “오직 은혜만으로”(Sola Gratia),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이다. 오직 믿음으로는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 구원 얻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루터와 칼빈을 거쳐서 개혁신앙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신약신학 분야에서 바울의 신학을 다시 재조명하여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 움직임은 종교개혁의 깃발인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신칭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교리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를 근절시키고 기독교 신앙을 갱신하는 데에 커다란 공헌을 했으나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위를 경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¹⁾ 이신칭의 교리가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여 신앙의 편견을 갖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서신의 재해석이 시도 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바울의 율법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들을 바울에 대한 오해와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바울과 율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인 견해를 저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유대 문헌을 연

1) 박영진,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의 논리에 관한 연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신약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6), p. 1. 참으로 놀라운 일은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를 가리켜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행위보다 믿음을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균형 감각을 잃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행위를 경시하므로 믿음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믿음은 실상이 잡히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실제의 유대교는 율법주의적인 행위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일찍이 무어(G. F. Moore) 등에 의해서 제기되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²⁾ 그 후에 1980년대 들어서 기독교의 기원을 연구하는 신약 학자들 중에서 기독교 사회에서의 유대인의 율법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샌더스(E. P. Sanders)는 그의 저서 'Paul and Palestinian Judaism'을 통해서 기존에 학자들 즉 베버(F. Weber), 쉬러(Schurer), 그리고 부세(W. Bousset) 등에 의해서 시작되고, 빌러백(S. Billerbeck)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온 유대교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등을 비판하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³⁾ 샌더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관련하여 구원을 주시고 복종, 혹은 회개를 통해서 언약적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하셨는데 이러한 종교 패턴을 샌더스는 '언약적 신율주의'(Covenantal Nomism)이라고 명명했다.⁴⁾ 이렇게 샌더스에 의해서 개진된 '언약적 신율주의'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 했다는 견해를 뒤집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방편이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도 언약적 백성이므로 그 백성에 걸맞게 하려고 지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 유대교를 '율법-행위-의'의 도식으로 이해했던 전통적인 방식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으며 그리고 그 은총의 공동체 속에서 계속 머물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언약적 종교라고 하였다.⁵⁾ 만약 어떤 사

2) G. F. Moore, "Christian Writers on Judaism," HTR4(1921): 197-254, quoted in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London: SCM Press, 1977), p. 33.

3)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London: SCM Press, 1977), p. 33-59.

4) Ibid., p. 237-238.

5) 샌더스는 유대교를 이렇게 언약적 신율주의로 보고 언약적 공동체에 머물기 위

람이 율법에 순종하면 그는 언약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며 만일 불순종하면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견해들은 놀랄만한 호응을 얻었다. 행위를 강조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놀랄 만한 발전과 전개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개신교의 아주 근본이 되는 사상인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샌더스의 말처럼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언약의 백성으로 지키면 그는 언약 안에 머무르나 그렇지 않으면 언약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중심으로 구원을 받고 혹은 받지 못하는 것이니 이신칭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믿음과 함께 믿음의 열매인 선행을 더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므로 로마교회의 교리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⁶⁾ 샌더스의 '언약적 신율주의'의 시도는 어찌 보면 보다 성경적이고 성경의 본문에 부착되어 있는듯하나 실상은 행위로의 복귀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는 부족하여 행위(선행)를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듯하다. 그리하여 결국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진리인 이신칭의 교리에 굳게 지켜야 한다. 개혁은 바로 세상에서 말하듯이 새로운 것으로의 전환이 아니며 근본이 되는 진리에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이 교리는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교리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는 교리이므로 수호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 개혁자로서 복음의 진리의 깃발을 치켜든 루터와 칼빈의 율법관을 먼저 살피고 그 후에 샌더스의 저서인 "Paul and Palestinian Judaism"(1977)과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1983)을 통해서 샌더스의 율법관을 살피려고 한다. 이것을 통해서 샌더스의 율법관이 얼마 해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고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언약적 종교라고 샌더스는 말하였다.

6) 서철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p. 3.

나 종교개혁자들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또한 루터와 칼빈의 율법관에 대해서도 비교하므로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그 후에 요즘 바울 신학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바울 서신 특히 갈라디아서 3장, 5장 3절과 로마서 7장 7절 - 13절과 로마서 9장 30절 - 10장 13절까지의 주석을 루터와 칼빈 그리고 샌더스 순으로 비교하여 샌더스의 율법관이 루터와 칼빈에 비교하여 무엇이 다르며 잘못 되었는지 살펴보고 위의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므로 바울의 율법관을 조명하려한다.

이 연구가 참으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설교자가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설교를 듣고 행위의 변화를 원하여, 믿음만을 설교하는 것이 변화가 더디고 혹은 행위를 경시한다는 오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⁷⁾ 더구나 많은 설교자들이 율법의 준수를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규범으로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음과 결부하여 강조하고 가르쳐오므로 더욱 많은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⁸⁾ 이러한 목회 현장의 이유와 필요가 본 논문을 출발하게 하였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에서 밝힌 것인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 그리고 현대학자인 샌더스의 율법관을 비교 서술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7)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성도의 조속한 행위 변화를 조망하여 이신칭의의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사변적인 앎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들이 팽배해 가는 듯하다. 그러나 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교리이며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는 교리인 것이다.

8) 서철원, 복음과 율법의 관계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p. 9-10.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바울서신에 가서 샌더스가 중요하게 자기주장을 펴기 위해 다루는 구절들을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서술하고 필자의 견해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논문이 쓰여 졌다.

제 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과 범위를 서술하고 제 2장부터 시작되는 본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살피고자 한다. 첫째로 루터의 율법에 대한 이해, 둘째는 칼빈의 율법에 대한 이해, 셋째로 샌더스의 율법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바울서신을 주석 통해서 이런 이해를 어떻게 개진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필자의 견해를 서술하는 순서로 논문은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을 먼저 다루는 것은 루터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대두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루터 신학에 있어서 복음과 율법의 중요성을 살피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루터의 이해가 루터신학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루터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를 살피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복음과 율법을 대립의 위치에 놓고 구별하는 루터의 신학을 살핀다. 그리고 루터의 복음과 율법의 대립이 신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말하는지 루터의 글을 통해서 살펴본다.

제 3장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이다. 루터는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고 대립의 관계로 보는 반면에 칼빈은 본질상 이 둘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칼빈이 이해하는 율법에 대해서 먼저 서술하여 칼빈이 율법을 어떻게 나누고 보는지를 살피려 한다. 그 후에 칼빈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핀다. 이것은 루터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칼빈에 있어서 율법의 용도를 어떻게 개진하고 있는지 그의 글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 를 통해서 살핀다.

「 」

제 4장에서는 현대 학자인 샌더스의 복음과 율법의 이해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바울신학에 놀랄만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개진된 전통적인 방식들이 배척을 받고 있다. 샌더스가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핀다. 샌더스가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지 이장에서는 특별히 그의 책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의 순서에 따라 1) 유대교적 율법의 이해 (언약적 신율주의) 2) 율법의 목적 3) 율법은 이루어져야 한다 순으로 샌더스의 견해를 서술하려고 한다.

본론의 마지막 장인 제 5장에서는 바울 서신 주석 비교이다. 여기에서는 갈라아서 3장 그리고 로마서 7장 7-13절과 9장 30 - 10:13절의 주석을 루터, 칼빈, 샌더스의 순으로 서술하고 비교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히려고 한다.

제 6장에서 이 모든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복음과 율법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설교자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기술함으로 마친다.

II. 종교개혁자 루터의 복음과 율법⁹⁾에 대한 이해

1. 루터 신학에 있어서 복음과 율법의 중요성

종교개혁자 루터(M. Luther)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신학자나 역사가는 없을 것이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탁월한 지도자일 뿐 아니라 서구역사에 근간을 이루는 인물로서 그의 신학적인 가르침이나 개인의

9) 본 논문에서 "복음과 율법"이라는 순서로 쓰려고 한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율법과 복음"의 순서를 선호하고 그리고 루터교의 율법관에 대하여 Barth가 "복음과 율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루터교내에서 일대 파문을 일으킨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복음과 율법"이라고 쓰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이며 율법이 복음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므로 필자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유와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은 교회나 사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중세 가톨릭의 개혁을 요청하였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교황권 아래에서는 자신의 양심을 때리는 번개와 벼락이었으며 이것을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두려웠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¹⁰⁾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고뇌와 번민을 하던 중 그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 의는 믿음에 의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루터는 이 깨달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내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나의 상황으로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치도 흠 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하고 계속 쫓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그 의라는 걸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으며 더 큰 사랑을 불러 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서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¹¹⁾

10) M, Luther, “탁상 담화” 루터선집 12. 지원용 편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6), p.205

11) Bainton, R.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마틴 루터의 생애 이

루터는 이 '탐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신칭의 교리에 이르게 된다. 이 복음의 체험은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사상의 중요한 핵심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루터의 신학의 핵심인 이신칭의는 바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결론이었다.

또한 루터는 '아우스버그 총회에 모인 성직자들에게 행한 권유'에서 참된 교회가 취급해야 할 32개의 논제를 언급하는 자리에게서 제일 먼저 "율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에 이어 죽어가는 자를 다루는 법"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복음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이 최고의 지식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기독교 교리의 요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부터 율법을 어떻게 그리고 충실히 구분할 수 있는 가를 알아야 할 것인데, 말로만이 아니라 느낌과 체험을 통하여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과 양심에 근거하여 그 두 가지가 잘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¹²⁾

이렇게 루터는 복음과 율법의 구분을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설교자가 이 둘을 명백하게 구별하며 혼돈하지 말기를 바랐다. 루터는 복음과 율법의 이해와 구분은 결국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고 루터의 성경 해석에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그리고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의 모든 신학적 해석과 전개는 근간이 되니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p. 67-8.

12) M. Luther, "Lectures on Galatians," *Luther's Work vol.26*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3), p. 117.

2. 복음과 율법에 대한 루터의 이해

복음과 율법에 대한 루터의 이해는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율법을 떠나서는 복음을 말해질수 없고 또한 그 반대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복음과 율법 어느 것 하나도 자신 스스로가 해명할 수 없고 말하고 있다.

(1) 복음과 율법의 구별

루터가 복음과 율법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구별을 G. Ebeling은 그의 책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에서 “구별(distinction)이란 분할(division)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율법이나 복음이나의 양자택일도 아니며 다른 것에 의해 대치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구별(distinction)은 공존의 관계 혹은 대립의 관계에서 말해지고 이해되어야 한다.”¹³⁾고 말하고 있다. 루터에 의하면 율법은 모세에게서든지 그리스도에게서든지 상관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인식케하고 양심을 고발하고 전율케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¹⁴⁾ 이렇게 루터는 율법을 죄를 인식케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무조건 완수해야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루터에게 율법은 인간이 죄의 현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게 만드는 요소로 보았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정죄아래 있는 인간에게 죄의 용서의 소식이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아래 있는 절망한 인간에게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13) G. Ebeling,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Philadelphahia: Fortress Press, 1970), p. 115

14)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er Ausgabe, 1883), 39 I. p. 348, 535, 351. 이후에는 WA39 I. 로 표시함.

죄를 용서하신다는 즐거운 소식이다.

복음과 율법은 루터에게 있어서 철저히 대립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루터는 복음과 율법이 상호 모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율법의 엄청난 요구의 근원적인 의미를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죄를 인식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효력이 전제 되어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즉 복음을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인식적인 면에서 율법이 복음을 선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율법 폐기론자들 즉 반율법주의자들의 의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율법의 참된 효력은 복음 안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후대에 루터교 신학자들은 율법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용법(*elenchticus usus*)라고 불렀다. 이렇게 율법은 복음을 인식적인 면에서 선행하며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일도록 우리를 내몰아 가는 유용한 종이라고 언급하였다. 루터가 이렇게 첨예하게 복음과 율법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루터는 인간이 결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에 이른다는 신약의 진리 즉 이신칭의의 진리를 강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¹⁵⁾ 이런 복음과 율법의 구별은 루터의 신학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이번에는 루터 선집 5권에서 “크리스천의 자유”를 통해서 고찰해 보자.

(2) 크리스천의 자유

15) 서철원, 복음과 율법의 관계, p. 20

복음과 율법의 철저한 대립과 구별을 통해서 복음 빛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 그는 “크리스천의 자유”에서 9절에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리하여 만일 사람이 계명을 통하여 그의 무력함을 인식하게 되고 어떻게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심하게 될 때 그는 참으로 겸비하게 되며 자신의 판단으로써도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자신 속에서 그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것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율법은 일점일획도 빼놓지 않고 완수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때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이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¹⁶⁾

그렇다 믿음만이 구원을 위하여 충족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 신앙 자체의 자유의 능력과 주권을 행하는 믿음 외에 아무 것도 필요치 않다. 보라!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자유가 아닌가!¹⁷⁾

비록 나는 무가치하고 저주받을 사람이나, 나의 하나님은 내 편으로부터의 아무 공적 없이 순수하고 값없이 주시는 자비로 의와 구원의 모든 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셨으므로, 이제부터 나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믿는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¹⁸⁾

루터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 혹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인 자유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강제에서부터 해방되어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16) M. Luther, "크리스천의 자유" 루터선집 5권 지원용편역 (서울: 킨콜디아사, 1986) p. 306. 9절

17) Ibid., p. 313. "크리스천의 자유" 15절.

18) Ibid., p. 326. "크리스천의 자유" 27절.

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자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로이 기쁘게 내 마음을 다하고 열렬한 뜻을 다 하여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그의 부로 나를 뒤덮으신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가 받으실 만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나에게 주신 것과 같이 나는 내 자신을 하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나는 이웃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하고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믿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내가 풍부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이렇게 루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며 풍성한 것을 경험하고 맛본 자이므로 사랑으로 그의 이웃을 안에서 산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어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행은 이미 그 동기와 목적에서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참되게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에서부터 자유로워져 참된 선행 즉 자유의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터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구별은 이렇게 그의 신학을 구성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가하는 것을 밝혀 주는 척도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능동적인 의와 수동적인 의

루터는 정치적인 의, 의식적인 의, 율법의 의를 능동적인 의(Active Righteousness)라 하였고, 신앙적인 의를 수동적인 의(Passive Righteousness)라 하였다. 이것 역시 루터의 복음과 율법의 구별에서 도출되

19) Ibid., p. 326. “크리스천의 자유” 27절.

어 나오는 신학이다. 루터는 정치적인 의, 의식적인 의와 율법의 의는 능동적인 의이며 “하나님께서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한 의는 수동적인 의다.”²⁰⁾ 능동적인 의는 형벌에 대한 공포와 선행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여 사악한 무법자들을 억제함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루터는 1531년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두 가지 용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첫 번째 용법(*primus usus legis*)라고 불렀다. 이것은 또한 시민적 용법 혹은 정치적 용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능동적이라 말함은 인간이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이러한 용법에 있어서 인간은 외적으로는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벌에 대한 공포와 보상에 대한 희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의인 수동적인 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신앙적인 의라고도 하고 두 번째 용법(*secundus usus legis*)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율법이 죄를 인식하고 고발하며 저주하는 율법의 기능을 의미한다. 루터는 이것을 율법의 참된 의무라고 보았다.²¹⁾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하나님 경외와 사랑을 요구하므로 율법은 사람들의 단순한 외적인 성취에 의해 만족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타락하기 전에는 지켜질 수 있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결코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 타락 이후에 사람은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죄의 종이 되었으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해도 실패하게 된다.²²⁾

루터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그 엄청난 요구를 인식하고 절망하

20) WA 40 I, 41. 42.

21) WA 39 I, 460.

22) WA 39 I, 460.

게 되든지 아니면 이율법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헛된 자만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율법은 빛이요 거울이라는 것이다. 율법은 이렇게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보다는 실제에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며, 인간이 성취해야 할 선에 관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이 이미 범한 악에 관해서,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에게 있어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보여 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²³⁾ 율법의 본래적인 의인 신앙적인 의는 인간이 성취할 수 없고,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저주아래 있는 인간은 할 수 없으므로 복음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변화된 인간만 그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는 복음과 율법의 구별을 통해서 율법의 용법을 구별하고 복음과 율법의 대립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들어 내었다.

3. 율법과 행위에 대하여

- 율법 폐기론 자들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루터는 복음과 율법의 구별과 대립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만이 의롭게 됨을 거듭 주장하였다. 그래서 복음의 빛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와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롭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율법을 전혀 필요치 않은가? 하는 당연한 질문에 귀결하게 된다. 그래서 반율법주의 즉 율법폐기론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루터가 보여준 율법의 이해를 살펴려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루터가 그의 논문 “율법폐기론자들에 반대하여”(Against the Antinomians)가 1539년 초반에 쓰여졌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루터의 후반기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3) G. Ebeling,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p. 137.

1525년부터 1536년 까지 아이스페벤의 대학총장이었던 아그리콜라 (Agricola)는 1533년부터 같은 도시에서 활동하던 목사인 게오르그 비젤 (Georg Witzel)과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²⁴⁾ 이때 아그리콜라는 자신이 이전 입장을 방어하고 루터가 자신의 본래 입장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도 역시 선포해야 한다는 루터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와의 논쟁에서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또한 루터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는 로마의 입장을 언젠가 비판하면서 복음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허락이라고 강조했다면, 이제는 반율법주의에 반대하여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는 율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아그리콜라는 루터가 보기에 율법과 복음이 서로에 대해 갖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제한시키고 있기에 열광주의자들처럼 복음으로 하나의 새로운 율법을 만들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이렇게 쓰고 있다. “율법을 제거하는 자는 복음을 제거하는 자이다.”²⁵⁾ 루터는 율법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율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한 죄의 폭로는 꼭 필요하다며 이렇게 루터는 말하고 있다. “율법은 죄를 보여준다. 그것이 의롭게 하지는 못하나, 우리를 죄인으로 세운다.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며, 죽이는 것이다.”²⁶⁾ 루터는 이렇게 반율법주의 자들과 변론을 통해서 율법이 칭의로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죄를 보여주어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기능

24) Bernhard Lohse, 마틴 루터의 신학, 정병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p. 258.

25) Ibid., p. 260.

26) WA 39 I 382, 2-4: "Lex non est necessaria ad iustificationem, sed inutilis et impossibilis, quia non aufert peccata, sed ostendit ea, non iustificat, sed nos peccatores constituit, non vivificat, sed mortificat et occidit."에서 재인용 마틴 루터의 신학 p.260-1.

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회개 없이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선포를 통해서 죄의 현실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십자가가 지닌 구원의 의미도 원칙적으로 율법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²⁷⁾

베른하르트 로제는 그의 책 『마틴 루터의 신학』에서 이렇게 루터의 율법관을 반율법주의와의 논쟁에서 언급하고 있다.

“아그리콜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면, 루터는 이에 반하여 먼저 율법의 경험과 인식이 그리스도로 인한 율법의 성취를 이해하게 해준다고 말한다. 만약 아그리콜라가 ‘아들의 상처’(violatio filii)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본질상 율법의 설교이지, 복음의 설교는 아니다. 이것은 아그리콜라가 율법을 구약, 그리고 복음을 신약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처럼 율법과 복음의 복잡한 상호 연관성(In- und Miteinander)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보는 도식은 옳은 것이 아니었다.”²⁸⁾

여기에서 칭의와 관련해서 율법의 의미를 루터는 율법이 칭의의 작용 원인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칭의의 전제라는 점에 있다.²⁹⁾ 그리고 루터는 두

27) 이 대목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루터가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과정으로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며 율법은 그리스도 오시기 위한 준비였고, 그의 강생과 죄 사역 후에는 더 이상 구원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서철원, 『복음과 율법의 관계』, p. 20)

28) Bernhard Lohse, 『마틴 루터의 신학』, 정병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p.261.

29) WA 39 I, 469, 13-19 : "Lex est una de causis rerum efficientium iustitiam. Negamus hoc. Nam iustificatio non est inter res illas, quae causantur lege, sed mors, damnatio, terror et tremor, cognitio peccati, ut dizi supra de requirere materialiter." (율법이 칭의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번째 반율법주의 논쟁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칭의로 인하여 현저하게 부드러워 졌으며, 따라서 의롭게 된 자들을 공포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가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마귀의 간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들도 율법을 통해 완전히 도말될 때까지 깨끗하게 되어야 할 여죄를 육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칭의 이전에는 율법이 지배하고, 율법에 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율법은 의로운 자들에게 죄를 추궁하고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으로 권면하기 위하여 가르쳐 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들에게 계속 선포되어야 하고, 마치 권면처럼 가르쳐져야만 한다.³⁰⁾

루터는 이렇게 칭의 이전과 칭의 이후의 율법의 역할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루터는 칭의 이전에는 율법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정죄하고 고발과 저주하여 모든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 폭군과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와 고발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

반대한다. 칭의는 율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죽음, 저주, 공포와 전율, 죄의 인식만이 칭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재인용. 베른하르트 로제 p.261-2. 여기에서 루터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서철원 교수님의 지적처럼 복음과 율법이 마주서며 또한 복음의 선포 전에 율법의 선포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어찌 보면 복음의 한계를 말하는 듯하다. 물론 루터는 율법도 복음의 일부로 보고 또한 죄를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의 은총을 뜨겁게 사모한다는 것은 이해하나 복음의 선포만으로도 즉 율법의 선포의 선행 없이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간과 되어 있다.

30) WA 39 I, p. 474.

지 않고 그리스도안에 있으므로 율법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은 율법적 동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 하나 율법의 의는 충족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율법 아래 행해진 모든 행위들은 외적으로는 선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은 죄인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총아래, 복음아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러나 이 말은 율법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방식에서 자유하다는 것이다. 복음의 빛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이 더 이상 죄를 정죄하며, 공포를 제공하는 폭군의 역할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기쁨과 사랑으로 변화시켜 율법의 친구가 된 것을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서 자유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강제로 지키지 않고 자원하여 율법의 요구를 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수행하는 주체가 이제 은총에 의하여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¹⁾ 그리스도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육신에 거하므로 죄가 남아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로 받아 들여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더 이상 공포스러운 폭군이 아니며 선을 향한 권면과 훈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³²⁾ 이렇게 루터는 율법폐기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율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31) M. Luther, "Lectures on Roman," *Luther's Work vol. 25*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2), p. 269.

32) 루터는 네 가지 종류의 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은총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철저하게 육의 욕정에 의해 수행된 죄의 행위, 외적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죄인 율법의 행위, 육의 저항에 부딪치지만 은총의 영이 승리하는 은총의 행위, 그리고 육의 욕정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 가능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행위지는 평화와 완전한 자복의 행위 등이다.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Lectures on Galatians* p. 224.

4. 소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루터의 신학의 중심에는 이신칭의가 있다. 서철원 교수가 지적한대로 루터의 신학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그의 율법에 대한 이해에도 반영되고 있다. 또한 그가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고 대립의 관계로 설명하여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하여 죄를 사하는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루터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획득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진리를 밝히 전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논리에서 우리가 지적할 것은 복음이 율법과 상관없이 선포되고 또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첫 단계는 바로 율법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을 깨닫게 하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제 2 용법인 정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에 그다음 단계로 죄의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에 의하면 율법이 구원의 과정에 개입하는 논리를 얻게 된다. 물론 루터의 율법에 대한 이해 즉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된다는 논리는 이해하겠으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율법의 선포가 복음의 선포의 전단계라는 논리에 이르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 이후에도 율법이 여전히 구원의 과정에 개입하여 인간을 정죄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논리에 접하게 된다. 서철원 교수는 이런 루터신학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루터의 주안점은 인간이 결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에 이른다는 신약의 진리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있었지만, 이 루터의 율법과 복음의 이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적용되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그리

스도 오시기 위한 준비였고, 그의 강생과 속죄 사역 후에는 더 이상 구원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³³⁾

루터의 종교개혁이후에 율법의 이해는 복음과 율법의 구별과 대립의 긴장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져 왔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통일성이라기보다는 복음과 율법의 대립 속에서 통일성을 강조한 것이 루터의 율법에 대한 이해 일 것이다. 루터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역사에 기리 남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 시대에 선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그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대립과 구별에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후에도 구원의 과정에 율법이 개입하는 논리에 이르게 한다.

III. 종교개혁자 칼빈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

루터는 복음과 율법을 대조와 구별로 보았다. 그러나 칼빈은 어떻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였는가? 칼빈에게 있어서도 율법은 루터의 경우에서처럼, 그것이 자연법이든 기록된 법이든 구분 없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칼빈은 루터보다 더 분명하게 율법의 제3의 용법을 강조한다.³⁴⁾ 칼빈은 루터와 같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루터와 다른 접근을 한다. 루터보다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율법을 이해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말씀 즉 옛 언약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구약

33) 서철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p. 20.

34) Inst., II, 7, 12.

의 율법의 말씀도 옛 언약으로서 복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³⁵⁾ 그러므로 복음과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칼빈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좀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한다.

1. 율법에 대한 칼빈의 이해

칼빈은 율법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구약 종교형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율법을 구약 전체로 넓게 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율법이란 사람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 준 종교 형식(form of Religion)이다.”³⁶⁾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율법이란 단어는 의로운 생활법칙, 곧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른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신 언약과 모세의 가르침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³⁷⁾ 이렇게 율법을 넓은 의미로 옛 언약의 전체로 보았던 것이다.

둘째로 범위를 좁게 하면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신 도덕법(십계명)을 의미한다.

(1) 언약법으로서의 율법

칼빈은 근본적으로 율법을 언약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루터와 다른 점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35) Inst., II, 7, 2.

36) Inst., II, 7, 1.

37) John Calvin, *The Old Testament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3), 19:7

율법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구하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준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 하였을 지라도 같은 뜻이다. 결과적으로 율법은 '값없는 은혜로 양자삼는 언약'(the covenant of the free adoption)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때때로 율법을 '복음과 대립되는 좁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은 '율법을 행하므로 의를 얻는다'고 공상하는 거짓 스승들과 논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오류를 반박해야 했다.³⁸⁾

여기에서 보듯이 칼빈은 루터와 같이 율법을 복음과 구별되거나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율법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 즉 값없는 은혜로 양자 삼는 언약에 포함하였다. 또한 칼빈은 기독교강요 II권 7장 서문에서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약 사백 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증언들을 근거로 볼 때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에 대한 간절한 열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소망을 강건하게 하여 그의 강림이 오래 지체되는 동안 낙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⁹⁾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언약을 인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율법의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요 예언자이며 언약의 상속자들임을 상기시키는 자로 보았다.

나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비단 경건하고도 의로운 삶의 규범으로 제시된 십계명을 의미한 것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38) Inst., II, 7, 2.

39) Inst., II, 7. 1.

전수하신 신앙의 형식을 의미한 것으로도 이해한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 제정자로 세움 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조상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언약을 유대인들에게 거듭거듭 언급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 언약의 상속자들임을 상기시비는 것을 보게 된다.⁴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인간의 나약함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그분은 성실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한 것이다.⁴¹⁾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의 율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안에 완전히 속하는 것이다.⁴²⁾ 이렇게 칼빈은 율법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의 백성에 주신 언약법으로 인식했다.

(2) 종교의식으로서의 율법

칼빈은 도덕상의 율법과 종교 의식상의 율법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으로 본다. 종교적 의식은 인간이 율법을, 도덕상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을 막아 준다는 것이다.⁴³⁾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켜서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인간들에게 종교적 의식을 행하도록 재정하셨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40) Inst., II, 7. 1.

41)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사상, The Theology of Calvin, translated by Horlod Knight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p. 111.

42) Ibid., p. 111.

43) Ibid., p. 112.

하나님께서 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의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신 것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하는 일에 관계되는 신앙의 의무들을 다루시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사랑의 의무들을 다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의의 첫째가는 기초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의의 다른 모든 부분들이 마치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의의 시작이요 기초라고 부르는 것이다. 4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고 또한 계명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성취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칼빈은 언약의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약속에 따라 살게 하신 것이라고 보았다.

2.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이제까지 칼빈의 율법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칼빈이 말하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즉 구원에 있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복음은 칼빈은 “율법의 약속을 모두 확립하고 추인하여 그림자에 실체를 결합한 것”⁴⁵⁾으로 보았다. 율법은 복음을 그림자로서 계시하였고 복음은 율법의 실체로서 율법이 손가락질 하던 것의 전부 혹은 실체라는 것이다.

율법에는 의의 완전함이 선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44) Inst., II, 8, 11.

45) Inst., II, 9, 4.

나타내셨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의에 도달할 수 없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인 율법을 지킬 의지도 또한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필연적인 결과로 타락한 인간들 마음 안에는 공포와 불안이 생긴다.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다는 절망과 자신의 무능력을 동시에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갈 3:24)를 주석하며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 비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율법에 아주 부합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일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율법의 목적도 율법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초보적인 것을 배운 후에 저들이 성인으로서 적합한 교육을 받는 데 나아가도록 다만 일정한 단계까지 저들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로’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마치 문법 선생이 ‘아이’를 열심히 가르쳐서, 그 아이를 더욱 높은 학문에 의하여 도약 및 수련할 수 있는 다른 선생의 손에 양도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선 하나님의 의를 밝혀서 사람들에게 저들 자신의 불의함을 확신시켰다. 사람들이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자기들이 참된 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자세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저들은 의를 다른 데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실로 율법의 약속은 저들을 자극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코 저들을 쉬게 하지 않았다.⁴⁷⁾

이렇게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며 성도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속사적 역사에서 유아들의 지식을 갖는 자들에게 그 지식이 성숙하기까지 유아들의

46) Inst., II, 8, 4.

47) Inst., II, 11, 5.

교수 방법으로 수련하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이제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행하시고 준수할 율법의 완성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고대하는 일이었다. 바로 율법이 해야 할 일은 몽학선생으로 백성들을 절망과 좌절로 이끌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보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칼빈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한 준비이며 그림자였다.

3. 칼빈에 있어서 율법의 용도

칼빈은 율법의 용도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 II권 7,8장에서 다루고 있고, 다시 '제 3용도'(Third use)에 대해서 기독교강요 III권 6,7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첫째는 거울의 역할로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몽학선생으로서의 기능을 말하고, 둘째는 정치적 기능으로서 이것은 사회적, 정치적 기강과 질서를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중생한자에게 있어서 생활의 규범으로서 기능을 구별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인 율법의 기능으로 '제 3용도'이라고 했다. '제 3용도'의 기능을 말할 때 루터와는 달리 칼빈은 복음과 율법의 변증법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통일적인 이해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 첫째용도: 죄를 인식케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서의 기능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니 율법은 거울과 같다. 칼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의함을 훈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정죄하고 저주한다.... 율법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비취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함에서 초래된 저주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 마치 얼굴의 오점들을 비취보는 거울과 같다.⁴⁸⁾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한다. 그리고 자신이 순결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오만에서 자신에게 무수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7 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였다. 우리 안에는 의를 행할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여 우리의 무가치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간구하도록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율법의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깨닫게 하는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는 율법의 지식이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죄인이 진실로 율법의 심판 때문에 정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롬 3:19) “사람이 모든 사람을 불신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파멸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롬 11:23)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미련한 생각을 버림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 있어야만 설 수 있고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적나라하게 빈손 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안에 깊이 피안하여 그에게만 의와 공적으로서 붙잡히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추구하고 기대하는 모든

48) Inst., II, 7, 6-7

자들에게 그리스도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다.⁴⁹⁾

이렇게 율법은 선택되었으나 중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를 인식케 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여 '회심의 준비'를 하게한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할만한 아무런 의와 능력이 없어서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믿음의 주요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한다. 이것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행사되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버림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타락 후 영에 의해 속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꽃피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의 첫 공포에 충격을 받아 절망에 빠져서 그들의 양심이 그 물결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⁵⁰⁾

이렇게 율법의 선택을 얻은 자들에게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나 공정하게 죄를 인식케 하는 역할을 한다.

(2) 둘째용도: 악인이 두려움 때문에 악행을 그만두도록 저지하는 기능

이 기능은 사회가 최고도로 악해지지 않도록 사회적 혹은 정치적 기강과 질서를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49) Inst., II, 7, 8.

50) Inst., II, 7, 9.

율법의 둘째 용도는 이것이다. 즉 율법의 두려운 위협을 들음으로써 강요받지 않은 한 바른 것에 대하여 아무 관심조차 없는 자들을 그 형벌의 공포로 인해 조금이라도 억제하고자 함이다.⁵¹⁾

세상을 최고조로 악해지지 않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 안에 공포와 부끄러움을 품게 하셔서 그들이 비록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죄악을 억제하시고 부패가 겉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할 증오심까지 품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창조주이시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일부의 사람들 속에서 보다 적나라하게 노출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다 잘 은폐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둬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요되고 강제적인 선은 인간들의 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간에게 허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과 소용돌이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세주께서 예비하신 평온을 위해서이다.⁵²⁾

(3) 세 번째 용도: 신자들에게 순종할 규범

칼빈은 이 세 번째 용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칼빈은 이것이 율법의 본래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다.⁵³⁾ 이것은 율법이 신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며 이제 신자들에게는 복음아래서 사는 생활의 규범으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51) Inst., II, 7, 10.

52) Inst., II, 7, 10. 재인용. 프랑수아 방델,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p. 238.

53) Inst., II, 7, 12.

말하자면 양심이 율법의 필연성 때문에 강제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어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왜냐하면 양심이 율법의 지배아래 있는 한 끊임없는 공포 가운데 잡혀 있으므로, 이런 종류의 자유가 이미 부여되어 있지 않은 한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을 선뜻, 그리고 쉽게 가지게 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⁵⁴⁾

"율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렘 31:33)는 것은 그것을 새김으로써 율법이 지배케 함이며 그 교훈과 일치하지 못하거나 화합하지 못하는 감정이 다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성령에 의해 거듭남을 입지 않은 한 돌이킴을 받고 그 율법에 복종하도록 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난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지 않으신 한, 사람 속에 바르게 행하려는 의향이 생길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생기 있게 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죽은 것으로 존재한다.⁵⁵⁾

이제 율법은 심판의 잣대가 아니라 신자들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자들의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신자들은 이제 그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고를 받으며 권고를 받게 되는데 바로 율법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 졌고 또한 율법은 신자를 가르치며, 경고하며, 책망하며, 시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권고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기쁨으로 한다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으로 작용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원하여 율법

54) Inst., III, 19, 4.

55) John Calvin, *The Old Testament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and the Lamentation*, vol. IV. by the Rev. John Owe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Comm. on Jeremiah 31:33

을 지키게 된다.

IV. 현대 신학자 샌더스(E. P. Sanders)의

복음과 율법의 이해

현대에 들어와서 바울신학의 분야에서 놀랄만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샌더스는 아주 독특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는 종전에 루터나 칼빈이 유대교를 이해하는 방식인 바울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종교개혁의 교리인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전통의 방식을 반박하고 새로운 견해를 개진하였다. 샌더스는 유대교의 율법을 언약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의견을 전개하고 있다. 샌더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그들의 행동 규범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을 이루는 것'에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므로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백성의 행동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⁵⁶⁾

샌더스는 유대교 문헌을 연구하고 유대 문헌에 나타나 있는 유대교는 언약에 입속한 종교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

56) E. P. Sanders,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p. 114. 율법은 이루어져야 한다(The Law Should Be Fulfilled)의 요약부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분명히 부인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이룬다 혹은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서 옳은 행위를 요약하고 있다고 샌더스는 말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행위를 강조하고 구원받은 자리에서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로 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언약에 사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다.⁵⁷⁾ 그리하여 샌더스는 이런 유대교를 ‘언약적 신율주의(Covenantal nomism)’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리고 1977년 출간된 그의 유명한 책 바울 “바울과 팔레스틴 유대교” (Paul and Palestinian Judaism)에서 유대교의 언약적 신율주의의 패턴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3) 선택을 유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4) 순종할 것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다. (5)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 보상하시며 범죄를 처벌하신다. (6) 율법은 속죄의 수단을 제공하며, (7) 속죄는 언약적 관계의 유지 또는 재확립을 맺게 만든다. (8) 순종, 속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언약 속에 머무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그룹에 속한다. 첫 번째와 마지막 항목의 중요한 설명에 따르면 선택과 궁극적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고려되는 것이다.”⁵⁸⁾ 그러면서 샌더스는 바울이 기존 전통에서 말하듯이 유대교가 율법 주의적이어서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 하기 때문에 유대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샌더스는 바울이 유대교를 배격하는 이유는 유대교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⁹⁾ 이렇게 샌더스의 유대교적 접근을 통한 율법의 이해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첫째 유대교적 율법이해 (언약적 신율주의) - 율법은 입교의 조건이 아니다.(The Law is not an entrance requirement), 둘째 율법의 목적(The purpose of Law), 셋째로 율법은 이루어야 한다(The Law should be fulfilled)로 나뉘어서 샌더스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를 살

57)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p. 237-238.

58) Ibid., p. 422.

59) Ibid., p. 522.

피고자 한다.⁶⁰⁾

1. 유대교적 율법 이해 (언약적 신을주의)

샌더스는 팔레스틴 유대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로서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를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학자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에 대한 이해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주어지고 그 은혜의 결과로 순종한다는 언약에 기초한 성경적이 견해들이 후기 유대교에 와서 편협한 유대교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샌더스는 반대하였다.⁶¹⁾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유대교가 율법을 완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율법주의적 유대교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샌더스는 이러한 전통적인 유대교에 대한 이해를 부정한다. 그리고 유대교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유대교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을 이해했다.⁶²⁾ 즉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유대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이루어 의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언약적 의식 속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샌더스의 핵심이 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견해를 펴나가는지 자세히 살펴 봐야 한다.

샌더스에 의하면 유대교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은 징벌과 조건을 해석의 틀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⁶³⁾ 그러나 샌더스는 이런 이해를 반

60) 이 순서는 샌더스의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에 샌더스가 제시한 목차의 순서를 따랐다. 그래서 그가 그의 저서에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려 했다. 단 언약적 신을주의에 관한 것은 그의 다른 저서 *"Paul and Palestinian Judaism"*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61)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p. 419.

62) Ibid., p. 419.

63) Ibid., p. 233.

대하고 랍비 문헌은 징벌은 자비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징벌’은 선택과 속죄라는 보다 넓은 틀 안에서 기능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언약이 순종을 조건으로 주셨다는 대목에 가서는 랍비적 유대교는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순종은 언약에 머무르기 위하여 그 명령을 고백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샌더스는 주장하고 있다.⁶⁴⁾ 이렇게 언약을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순종을 한 것 즉 조건이 되었다기 보다는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언약관계의 지속적인 유효성을 갖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⁶⁵⁾ 샌더스는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을 뒤엎고 은혜로 성립된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샌더스는 언약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머무르기 위서라고 말하므로 기본적인 생각을 뒤엎고 있다.

샌더스는 이런 율법의 기능을 ‘들어감’(Getting in) 과 ‘머무름’(staying)이라는 도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⁶⁶⁾, 율법의 준수는 언약관계에 들어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조건이나 의롭게 됨으로 보지 않고 ‘머무름’을 위해 요구 되어 졌다는 것이다. 이것을 샌더스는 그의 유명한 율법이해인 ‘언약적 신율주의’(Covenantal nomism)이라고 이름 하였다.

또한 샌더스는 유대의 랍비 문헌을 살핀 후에 랍비 종교에서 속죄의 기능이 지배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샌더스는 모든 범죄에 속죄의 수단이 있음을 지적하고 랍비들은 이 종교적인 문제인 속죄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개인들이 속죄는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롭게 하여 주는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죄의 수단을 통해서 언약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64) Ibid., p. 233-4.

65) Ibid., p. 233-4.

66) Ibid., p. 424.

로 유지되고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믿었다는 것이다.⁶⁷⁾

이상에서 샌더스는 유대교가 '율법- 행위- 의'로 이어지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며,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유대교를 이해하였다. 샌더스의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이름되어지는 이 새로운 이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으며 또한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 준수라는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이다.⁶⁸⁾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로마서 강해, *The Message of Romans* 에서 샌더스의 언약적 신율주의에 대하여 말하기를 유대교에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고 말하고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 아니며 구약에 나타는 사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샌더스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언약 아래 남아 있는 것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 즉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니 인간의 행위가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⁶⁹⁾ 그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아래 들어감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또한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결코 행위로 되지 않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로마서 5:1-2).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

67) Ibid., p. 233-4.

68) 샌더스에 의하면 구원을 받은 후에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혹은 구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불완전하다는 말인가? 구원 받은 후에도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칼빈과 루터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의 율법의 제 3용법 즉 언약백성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언약 관계 즉 신약에서는 구원을 지속하기 위해서 요구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

69) 존 스토틀, 로마서 강해 (서울: IVP, 2002), p. 24-5.

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름도 우리의 율법의 순종하는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있다는 것이다.

2. 율법의 목적(The purpose of Law)

샌더스는 그의 책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의 제 2장에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샌더스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바울의 전제가 철저한 유대교적 특성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⁷⁰⁾ 즉 샌더스의 주장은 바울이 유대교적 사고에서 이 모든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율법의 목적을 개진하고 있다. 샌더스는 율법을 주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이 물음에 대답하기 까다로운 아주 명백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었다.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대립될 수 없다; 하지만 율법은 구원을 주지 않는다. 대체로 바울이 이 딜레마를 벗어나는 출구는 율법과 죄를 관련지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율법을 부정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다(갈 3:22);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갈 3:24).⁷¹⁾

이렇게 샌더스는 율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율법과 죄를 연관지어 하나

70) E. P. Sanders,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p. 65.

71) *Ibid.*, p. 65-66.

님의 뜻인 믿음으로 의에 이르도록 인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을 순종함으로서 의로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율법의 다른 역할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⁷²⁾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가 궁극적으로 왕 노릇하게 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범 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⁷³⁾ 샌더스는 바울이 율법은 죄를 낳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므로 딜레마에 이르게 되는데 샌더스는 바울이 이런 딜레마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처음에 바울은 율법과 죄에 대한 이전의 연관을 가르치 않았지만, 둘의 연관 방식을 둘이 하나님의 구원 의도에 공통적으로 종속된다는 것 외에 다르게 설명해야 했다. 그래서 로마서 7:7-13에서 바울은 여전히 (1)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2) 율법과 죄는 연관되어 있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죄의 관계는 변한다. 율법은 선하고 '생명에 이르게'하려고 주신 것이지만(7:10), 하나님과 무관한 세력에 의하여 즉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게 이용당했다.(7:8, 11, 13).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상황이 생겼다. 그러므로 죄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견해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변화는 죄에게 부여한 새로운 역할 때문에 요구되는 것 같다.: 이제 죄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슬러 율법을 사용하는 능동적 작인이다. ...율법은 죄의 작인(the agent of sin)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정죄하고 그래서 범법함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죄는 계명을 통하여 탐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율법은 탐욕을 정죄하고 따라서 탐욕하는 자를 정죄한다. 그래서 율법은 죄의 작인(the agent of sin)이다.⁷⁴⁾

72) Ibid., p. 70.

73) Ibid., p. 70.

74) Ibid., p. 73-74.

샌더스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 부정적인 의미로 로마서 5장 20절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와 로마서 7:13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를 로마서 3: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와 대조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 즉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죄는 율법의 능동적 작인(The agent)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는 또한 율법을 사용하여 범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⁷⁵⁾ 이렇게 율법은 죄와 연관이 되어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뜻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다고 하였다. ⁷⁶⁾

샌더스는 바울이 율법과 죄와 하나님의 뜻의 내적 상호 연관성을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⁷⁷⁾ (1) 로마서 5장 20절이하나 갈라디아서 3장 22-24절은 율법과 죄를 하나님의 뜻에 예속시킨다. (2) 로마서 7장 7-13절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범죄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 죄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진술한다. (3) 로마서 7장 14-25절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 율법과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깨뜨리고 있다. 그러나 샌더스는 이러한 불일치를 “비일관성”으로 명명하지 않는다. 샌더스에 의하면 위의 세 가지 다른 바울의 진술들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었다는 바울의 옛 신념과,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새 확신 사이에서, 율법에 대해 점차 부정적으로 진술해 간 “유기적 발전”으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⁷⁸⁾

75) Ibid., p. 74.

76) Ibid., p. 70-73 여기에서 샌더스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다.”고 언급하므로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77) Ibid., p. 75.

그러나 샌더스는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샌더스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은 생명을 위해 주어졌다고 진술한 바울은 그러나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다른 구원 작전에 착수해야 한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⁷⁸⁾ 샌더스에 따르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며,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동시에 바울은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샌더스의 일관된 진술이다. 이렇게 바울은 그의 중추적인 확신 즉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는 것에서 각기 다른 시도들이 솟아난다는 것이다. 샌더스는 바로 이 점에서 바울의 사상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들 각기 다르게 나온 시도들은 그 자체 끼리 서로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 샌더스의 견해이다.

그러나 샌더스는 율법의 목적을 다루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주신 것이며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과 상관없이 다른 구원의 작전에 착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음은 놀랄 만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샌더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에 이르는 길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셨다고 말하

78) Ibid., p. 75-6.

79) Ibid., p. 80. 샌더스는 율법의 지킴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과 동시에 율법은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길을 내셨다고 말하므로 자기모순에 빠졌다. 어찌 ‘의의 길’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율법의 행위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되며 역시 율법과 상관없이 다른 길을 주셨다고 하므로 율법의 행위를 ‘의’에 이르는 길로서 암시하는 것이니 이것이야 말로 샌더스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그럼 왜 율법으로 생명이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샌더스가 말하는 다른 구원의 길을 내셨단 말인가? 샌더스의 의견에 따르면 하나님 역시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신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가 위절에서 언약적 신율주의를 언급하면서 언약 아래 머물기 위해서 율법의 순종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또한 더 발전하여 율법의 목적을 다루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고 말하므로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할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즉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있으나 다른 길을 제시하셨다 하므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함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3. 율법은 이루어야 한다(The Law should be fulfilled)

전장에서 샌더스는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목적을 바울이 죄와 연관시키면서 부정적으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룬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율법 혹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 혹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은 샌더스가 자기모순의 논리에 빠져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샌더스는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의가 율법으로 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난다고 길게 주장한다(2:15-3:18) 후에, 방향을 바꾸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묻고(3:19) 율법이 죄와 연관되고 부정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룬다고 설명한다(3:22-24).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3:25).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율법’ 혹은 ‘그리스도의 법’ (5:14; 6:3)을 이룬다(혹은 이루어야 한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

처럼 이 세 가지 핵심적 요점은 현재 우리가 연구하는 내용의 구조를 형성한다. (1) 아무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2)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 대답은 율법을 죄와 어느 정도 연관시키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이 요점을 철저하게 살핀다. (3)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이룬다 혹은 이루어야 한다.⁸⁰⁾

샌더스는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죄와 연관되게 서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 역시 납득이 되지만 역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⁸¹⁾ 이렇게 샌더스는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율법은 그에게 있어서 죄를 지적해 주는 부정적인 역할 뿐 아니라 율법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고 또한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샌더스의 견해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샌더스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믿음과 입문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대립을 강조한다고 해서, 바울의 견해에 따르면 입문한 후에는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⁸²⁾ 샌더스는 일관되게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적합한 행동을 말할 때 즉 구원 후에 율법의 자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을 이루는 것'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것이다.⁸³⁾ 즉 구원 후에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결론에서 고전 7:19절의 '계명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샌더스는 바울이 행동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자가 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⁸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80) Ibid., p. 93.

81) Ibid., p. 94.

82) Ibid., p. 113-4.

83) Ibid., p. 114.

백성이 되는 데는 율법이 명백하게 대립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구원이 율법의 의로 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면서 또한 바울은 행동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만 한다고 샌더스는 바울의 율법관을 보았던 것이다.⁸⁵⁾ 이렇게 샌더스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말하나 동시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이루도록 아니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주셨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이런 샌더스이 견해는 그의 사상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의 이 사상이 그의 율법관과 복음에 대한 것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

V. 바울 서신 주석 비교

이제 샌더스가 말하는 주요 성경구절들의 주석을 들어서 어떻게 루터와 칼빈이 이 말씀을 들을 주석하였는지 보려고 한다. 윗장에서 많은 샌더스의 사상을 언급하여서 반복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샌더스의 주장이 아래에서 언급된 구절에 근거를 두고 이 구절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학

84) Ibid., p. 114. 그러나 샌더스가 말하는 것과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행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 샌더스가 계명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필요하다는 것과 칼빈이 말하는 생활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행함은 샌더스의 전제가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 샌더스는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샌더스가 말하는 것은 그가 회피하려는 율법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85) Ibid., p. 113-4.

문적 작업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과 학문이 그들의 연구와 신앙의 고백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의 신학적 연구의 토대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샌더스의 견해를 살피고 루터와 칼빈을 살펴서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샌더스의 의견을 먼저 살피는 것은 샌더스가 성경 주석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견해를 개진하면서 성경을 주석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샌더스의 주장이 언급된 구절들을 먼저 다루고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주석을 다루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하여 이 장에서는 샌더스를 먼저 다루려고 한다.

1. 갈라디아서 3장 (1) 샌더스의 이해

샌더스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의 주장은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형제'(2:4)라고 언급된 기독교 선지자들을 반대한다고 해석하고 있다.⁸⁶⁾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이방인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조건으로서 혹은 기본적인 요구로서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샌더스에 의하면, 바울의 주장은 믿음 자체를 옹호하거나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주장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교회의 일원이 되는 조건으로 이방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샌더스는 우리가 은혜와 공로라는 신학적 쟁점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실제 성경에서 논쟁의 실제적인 주제를 보지 못하고 오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샌더스는 많은 학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 유대교에 대한 바울의 반박으로 본다고

86) E. P. Sanders,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p. 18.

언급하고 각주에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을 Betz, Hubner, G. Wagner, Ferdinand Hahn, Ulrich Luz 등을 언급하고 있다. 샌더스는 사람들의 통속적인 생각들 즉 유대교를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로 생각하므로 바울 역시 이런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⁸⁷⁾ 샌더스는 이런 이해를 반박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요지는 개인이 심판 때 의롭다하는 선언으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울의 회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려면 혹은 참된 교인으로 간주되려면 유대교 율법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요지라는 것이다.⁸⁸⁾ 샌더스는 이렇게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논쟁의 핵심을 입교의 조건에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입교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울이 반대하고 믿음이 유일한 자격 조건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⁸⁹⁾ 그럼 여기에서 샌더스의 갈라디아서 3장 10절-12절⁹⁰⁾에 대해 주해를 보자. 샌더는 바울의 주장에 담긴 요지가 율

87) E. P. Sanders,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p. 17-19. 샌더스는 전통적인 견해가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중요한 성격적 쟁점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므로 자신의 견해를 성경 신학적인 발전과 진보로 보았고 전통적인 견해는 낙후되고 낡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88) Ibid., p. 19-20.

89) 샌더스는 여기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할례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갈라디아서 6:15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할례를 필수적인 교인 자격 조건으로 만들 때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샌더스는 입교의 조건이 믿음이지만 행위도 역시 중요하고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지키라고 한다는 것이다.

90) 갈 3:10-12: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3: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갈3: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법을 다 행할 수 없으므로 율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전통적 견해)에 대해 세 가지로 반대되는 의견을 갈라디아서 3장을 들어서 제시하였다.

첫째로, 샌더스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의 바울의 주장은 용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바울이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견해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용을 한다는 것이다. 즉 바울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며 그 단어는 “이방인,” “의” 그리고 “믿음”인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인용된 창세기15:6⁹¹⁾은 “의”를 “믿음”과 연결한다. 그리고 샌더스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창세기 18:18를 인용하여 이방과 아브라함을 연결하여 이방인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하여 사용하였고, 갈라디아서 3:6절에서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믿음과 의를 연결시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던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다.⁹²⁾

샌더스가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신명기 27장 26절에서 노모스와 ‘저주’가 연결이 된 것에도 위의 용어의 논의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바울이 신명기 구절을 인용한 것은 그 구절이 믿음과 대조를 이루는 율법이 아브라함의 복과 대조를 이루는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샌더스에 의하면 신명기 27장 26절은 70인경에서 “율법”과 “저주”를 연관시킨 유일한 말씀이다. 따라서 그는 주장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요지는 “율법”과 “저주”라는 말에 담겨 있지 우연히 등장한 “누구든지”⁹³⁾라는 단어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91) 창세기 15: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92) Ibid., p. 20-22.

93) 샌더스는 갈라디아서 3:10에서 인용한 신명기 27:26에 나오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둘째로 샌더스는 갈라디아서 3장 10-12절에 있는 주장들과 증거본문 즉 구약성경의 인용문들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바울 자신의 진술들의 의미는 증거 구절들이 말하는 바에 의존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반대하여, 바울 자신의 진술들이 증거 구절들의 의미에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10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수용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단순히 말하고 있다. 이것도 또한 10절의 “온갖”이라는 말이 아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⁹⁴⁾

셋째로, 샌더스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8-14절의 주장을 전체로 보아 갈라디아서 3:10-12절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샌더스는 갈라디아서 3장 8-14절의 진행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주된 명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을 의롭다 하신다(3:8)이며, 이는 아브라함 안에서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18장 18절(“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을 인용함

강조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5:3의 나오는 ‘전체’라는 단어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울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종의 위협으로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율법을 받아들임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샌더스는 사람은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저주아래 있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 율법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유대교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유대교적 견해를 이렇게 적고 있다.

“율법은 만족할 만큼 성취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다소간 모든 사람은 이런저런 때에 범죄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속죄 수단을 정해 놓으셨다. 이제 바울의 주장을 율법에 관한 그의 기독교 이전 견해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는 바울로 하여금, 이 요점들 가운데 두 요점을 부인하게 만들어야 한다. 바울은 율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충분히 행할 수 없고 속죄가 전혀 없다는 견해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측면에서 바울은 현존하는 서신에서 그 어떤 견해든지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결코 없다.”(E. P. Sanders,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p. 29)

그래서 샌더스는 갈라디아서 5:3에서 바울이 전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런 이유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94) Ibid.,p. 21-22.

으로써 입증된다. ‘복을 받는다’는 낱말은 자연스럽게 그 반대인 ‘저주 받는다’에 이른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3장 8절의 긍정적 진술에 대한 부정적 증언을 선언한다.⁹⁵⁾ 즉 3장 8절은 3:10-12절의 뒤받침이 되고 이 구절들은 그 자체가 어떤 근본적인 주장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샌더스는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3장 8절에서 언급된 복의 반대 개념인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12절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3: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셨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3:14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3:8절의 긍정적인 점을 재 진술하고 있다고 샌더스는 말하고 있다.⁹⁶⁾

샌더스는 레이제넨의 의견인 바울이 어디서도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이런 견해가 갈라디아서 3장 10-12절에 전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레이제넨의 의견에 따랐다. 또한 샌더스는 자신의 이 견해를 빌립보서 3장 6절과 로마서 5:12절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바울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바울)이 흠 없다고 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⁹⁷⁾ 샌더스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로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한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해석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의미를 의미한다. 그래서 샌더스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하거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바울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95) Ibid., p. 22.

96) 홍인규, *바울의 율법과 복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p. 160.

97) E. P. Sanders,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p. 23-4.

(2) 루터의 이해

샌더스는 갈라디아서 3장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자신은 일반적인 견해 즉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유대교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 진다는 율법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이해된 유대교를 반대했다는 것을 전통적인 견해 혹은 일반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자신은 새로운 견해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루터가 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음과 율법을 대립관계로 이해했으므로 루터의 갈라디아서 3장의 주석을 살펴 무엇이 전통적인 견해이고, 또한 어떤 부분을 루터가 말하고 있는지 살펴려고 한다. 갈라디아서의 논점에 대해 말한 그의 글 “Lectures on Galatians”⁹⁸⁾ 통해서 루터의 갈라디아서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는 10절의 주석은 “저주는 아브라함 밖에 있는 것 그것은 믿음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삼켜 버리는 일종의 홍수이다.”⁹⁹⁾고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저주의 홍수를 피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축복의 약속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라고 강하게 조언하고 있다. 루터는 바울이 영생을 여기서 논하고 있고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통하든지 혹은 인간의 전통을 통하든지, 그 밖의 어느 방법을 통하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의 약속과 복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 즉 이세상의 의를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혼돈하여 혼합하기 쉽다고 말하고, 영생을 주는 영적인 의는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그가 믿은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고 허락된다고 말한다.¹⁰⁰⁾

루터는 지적하기를 이 복(영생 혹은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라고 받는

98) M. Luther, *Luther's Works*, vol. 26 "Lectures on Galatians 1535" Chapters 1-4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3)

99) *Ibid.*, p. 248.

100) *Ibid.*, p. 249.

복이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통하여서는 받을 것이 아니라는 반대적인 의견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¹⁰¹⁾고 말하므로 복음과 율법의 대립을 주장하고 있다. 루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의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믿음 밖에서는 무엇이든지 저주아래 있으며 하늘과 영원 속에 있는 저주 아래 남는다고 확신에 차서 단언하고 있다.

루터는 신명기 27:26절¹⁰²⁾에서 가져온 이 증언으로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또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거나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한다.¹⁰³⁾ 그리고 바울의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아래 있나니”라는 적극적인 진술을 모세의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부정적인 진술의 기초 위에서 바울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터는 바울의 것과 모세의 것이 같음을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화목을 어떻게 이루겠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마태복음 19장 17절의 말씀 즉 “만일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에 들어가리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이것은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반대되는 것을 증명하려는 바울의 증명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⁰⁴⁾

여기에서 보듯이 샌더스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구약의 인용문들을 용어에 관한 문제라고 하여 단지 바울이 용어들 즉 “이방인” “의” 그리고 “믿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15: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고 “율법”과 “저주”라는 용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신 27:26절을 인용한 것이지 “누구든지”와 “온갖”이라는 단어에 요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반면에 루터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101) Ibid., p. 250.

102) 신27:26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103) M. Luther, *Luther's Works, vol. 26 "Lectures on Galatians 1535"* Chapters 1-4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3), p. 252.

104) Ibid., p. 253.

않으면 저주아래 있다는 부정적인 진술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말 즉 율법의 행위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궁극적인 진술을 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구약의 인용문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샌더스와 루터는 확연한 주해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샌더스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일관된 주장은 바울이 어디서도 율법을 이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을 가리켜서 흠이 없다고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루터는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간이 아닌가? 루터는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신학에 있어서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의로운 일을 행하며, 철학에서처럼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다(롬 8:4). 선행을 통하여, 베드로 후서 1:10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명과 선택은 날마다 확증되고 더 확실한 것이 되어 간다. 그리고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¹⁰⁵⁾ 샌더스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나 루터는 죄의 잔재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천명하고 단,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믿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를 이루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로워진 좋은 나무 이므로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루터의 논리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행위는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못한다는 것이 루터의 견해이다. 즉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지 우리의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이 교리를 반대하는자들이 행위의 보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믿음의 교리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지적한다.

105) Ibid., p. 260.

그러나 루터는 다시 한번 “행위는 본성에서 다르고 철학에서 다르고 신학에서 다르다. 본성에서는 나무가 먼저라야 한다. 그리고 열매는 그 다음이라야 한다(롬 8:1-4). 도덕 철학에서 행위는 행위를 잘하기 위한 선한 의지와 바른 이성을 뜻한다. 이것은 철학이 정지하는 곳이다. 신학에 있어서 행함은 전제 조건으로 믿음 자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¹⁰⁶⁾ 이렇게 루터는 신학에서 행위는 믿음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루터가 지속적으로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샌더스는 율법을 인간이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 예로서 바울이 자신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언급한 것을 들어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루터와 전혀 다른 근원에서의 행위를 언급하는 셈이다.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좋은 나무가 되어 율법을 지키나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나 샌더스는 인간에게 본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1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과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아주 분명한 권위를 주고 있다고 루터는 평가하고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만일 믿음으로 라면 율법으로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울을 율법과 믿음을 배타적인 것으로 혹은 정반대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¹⁰⁷⁾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루터는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립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야 의에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샌더스의 갈라디아서 3장의 주석을 통한 복음과 율법의 이해는 루터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106) Ibid., p. 262-3.

107) Ibid., p. 268-9.

(3) 칼빈의 이해

칼빈도 역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주석에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저주 아래 가두어 두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칼빈은 중요한 논점을 '의의 근거'에 두었다. 그래서 율법의 선고는 율법의 어느 부분이든지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도록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삼단론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율법의 어느 부분이라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이 판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유죄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¹⁰⁸⁾

칼빈은 10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반론하고 있다. 만일 우리에게 율법을 성취할 충분한 힘이 있다면, 바울의 논거는 확실한 것이 못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삼단론법을 근거해 볼 때 두 가지의 가능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첫째 바울이 불완전하고 부당한 이론을 제시했든지, 아니면 둘째로 인간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든지 둘 중의 하나 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칼빈은 10절 주석에서 바울이 로마 교황파가 반대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칼빈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도록 명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저주 받고 있다.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래적으로 부패하여 율법을 지킬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10절을 주석하였다.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복이 방해를 받으며 거절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율법의 저주뿐이라고 말한다. ¹⁰⁹⁾ 칼빈은 루터보다 인간의

108)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Galatians and Ephesia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8), p. 89.

109) *Ibid.*, p. 89.

본성의 부패를 더욱 강조하여 말하므로 10절을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는 것이다. 또한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와는 달리 칼빈은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바울의 견해를 부가시키므로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11절 주석에서 칼빈은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하박국 성구를 인용하여 말한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만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도 확실히 승인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에 의하여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요청되는 의를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 없는 한, 모든 사람은 생명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테 내가 이미 앞에서 충고한 바대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의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러한 완전함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다.¹¹⁰⁾

칼빈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3:10-12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샌더스가 말하듯이 이 구절의 중심은 용어들 즉 “이방인” “의” 그리고 “믿음”에 있지 사소한 단어인 ‘누구든지’와 ‘온갖’이라는 단어에 있지 않다는 견해와 달리하고 있다. 칼빈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역시 율법의 “온갖” 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주아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칼빈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하면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나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맥의 정황을 살펴 볼 때 칼빈은 바울이 말하고 자 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것을 이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칼

110) Iblid., p. 90-1.

빈은 바울이 온갖 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율법의 모든 부분 즉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석하므로 '온갖'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소결론

샌더스는 갈라디아서의 문제를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했던 유대인들과의 대립으로 보지 않았다. 그 결과 그가 주장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정황을 잘 살펴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입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종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3장 10-12절에서도 샌더스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으로 이 구절들을 풀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전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인간이 저주아래 놓인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이르게 되고 어찌 보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종교개혁의 사상을 역행하는 사고일 것이다.

홍인규 교수는 그의 책 바울의 율법과 복음 에서 샌더스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¹¹¹⁾ 그에 따르면 바울이 신 27:26절을 인용한 것은 단순히 3:8절에 나오는 축복에 반대되는 '저주'라는 용어를 율법과 연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실제 상황을 다루기 위함이며 즉 바울이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가지고온 구절이므로 그도 반박하였다고 말한다. 샌더는 또한 "all", "율법책", "모든 사람"은 인간의 곤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가 되었다는 3:13절을 설명해주는 열쇠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바울은 율법의 수행 불가능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샌더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

111) 홍인규, 바울의 율법과 복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p. 157-8.

대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10-12절의 내용을 어떻게 주해해야 하는가? 간단히 갈라디아서의 문제점을 살피고 위절들을 주해 해보자.

(a) 갈라디아서의 문제들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증명하고,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었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할례를 받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해져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갈라디아서의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만약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해져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화 시키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실제로 할례를 받아들이고 또한 율법을 준수하여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시급한 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온전케 하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는 생존권을 얻게 되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입교하는 문제를 다루며 입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샌더스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샌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이 단지 이런 논리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생존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라고 말하고 있다.

(b) 갈라디아서 3:10-12절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10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러데 여기서 샌더스가 문제를 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율법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다. 샌더스는 율법의 행위를 '언약적 신율주의'를 말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 언약 '안에 있음'을 특징 지워 주는 종교적 행위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¹¹²⁾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한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만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함이 이 본문의 핵심이다.¹¹³⁾ 여기에서 바울은 신중하게 호이 엑 피스테오스 ("믿음의 사람들")을 호소이 엑 에르곤 노무("율법에 대한 복종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다.¹¹⁴⁾ 그리고 율법에 대한 복종을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지칭함은 내용상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둘 중의 하나인 것이다. 믿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율법을 의지하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한 자들은 저주아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바울이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온갓"이라는 말이 신명기 27:26에는 없다. 그냥 단순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삼가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울은 온갓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의 부패한 성품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알란 코

112) E. P. Sanders,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p. 33, 155-7.

113) Cole, Alan, *틴델 주석, 갈라디아서* 김효성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3), p. 115.

114) *Ibid.*, p. 113.

울(Alan Cole)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여긴 자들은 그들이 열방 즉 율법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들이었다.”¹¹⁵⁾고 주석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대로 오직 무식한 자들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도 거기에 포함한다고 확인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쐈기를 박고 있다.¹¹⁶⁾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2,23)라고 말하고 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율법의 의를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데 실패하고 또한 이룰 이룰 사람이 없으므로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며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10절의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박국 2:4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후에 아브라함을 언급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한다. 즉 세상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씨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는데 그 약속을 믿음은 바로 구원자를 믿는 것이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것이다. ¹¹⁷⁾ 그러므로 바울은 처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430년 후에 온 율법이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율법이 온후에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됨을 강하게 말하고 있다.

115) Ibid., p. 113.

116) Jonh R. W. Stott, 갈라디아서 강해, Only one Way 문인현, 김경신 공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75), p. 95.

117) 서철원, p. 37.

루터에게 이 문제는 자신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핵심이 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루터는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믿음이 먼저 오지 않고는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한다. 루터의 사고는 일관되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의로운 행위(율법의 행위)를 하며 이렇게 해야만 가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과 선택이 날마다 더 확실해진다는 것이다(벵후 1:10). 그러나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죄성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칼빈도 역시 그의 주석에서 루터와 같이 이 구절의 핵심을 '의의 근거'에 두면서 율법을 성취할 힘이 인간에게 없으며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칼빈은 인간의 부패성을 강조하여 율법을 성취할 힘이 없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한결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샌더스가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하던 '누구든지'와 '온갖'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율법의 저주아래 있고 율법의 '온갖' 곧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샌더스는 이런 칼빈과 루터의 전통적인 생각을 버리고 단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므로 인간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능력)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필자의 견해는 이 샌더스의 견해는 샌더스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거부하고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암시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의 부족함을 언급함이니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울이 제시한 것처럼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며, 언약의 거룩을 지키는 방패요 울타리로서 언약 백성들의 생활 규범이다.

118)

118) 서철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p. 174.

2. 로마서 7:7-13¹¹⁹⁾

(1) 샌더스의 이해

샌더스는 딜레마를 언급하고 있다. 샌더스는 주장하기를 바울이 선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또한 자신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기초하여 볼 때 율법은 의를 낳을 수 없음을 확신하였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확신에 근거하여 말하지만 율법에 대하여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한다.¹²⁰⁾ 그리고 바울이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을 언급하므로 즉 율법은 죄를 낳는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이 믿음의 기초를 두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바울은 로마서 7:7-13절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¹²¹⁾

샌더스가 주장하기를 죄는 율법을 사로잡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므로 죄는 율법을 사용하는 작인(agent) 이 된다. 즉 죄는 율법을 사용하여 범죄를 조장한다(7:8, 11, 13)라고 말한다. 여기서 샌더스가 주장하는 바울의 이해는 율법은 죄의 작인으로서 여전히 죄와 연관되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죄는 하나님의 뜻에 귀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¹²²⁾ 이것은 샌더스가 계속

119) 롬7:7-13 그런즉 우리가 무슨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9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120) E. P. Sanders,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p. 70-3.

121) Ibid., p. 73-4.

122) Ibid., p. 74.

적으로 주장하는 율법에 대한 견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샌더스는 말하기를 바울이 율법과 죄의 적극적 연관을 부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개인은 선한 것을 알고 행하려고 하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방해 받는 다는 것이다. 이것을 샌더스는 죄라고 할 수 있고(7:17, 20)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죄의 법이라고 ‘다른 법’을 이야기 하므로 율법과 죄의 적극적인 연관성을 무너트리고 있다.¹²³⁾ 샌더스는 7장을 주해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온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장하려는 딜레마가 매우 깊다고 말하고 있다.¹²⁴⁾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절대적인 확신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일치를 샌더스는 율법과 죄의 적극적인 연관성을 바울이 부순다고 봄으로 통일성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샌더스가 말하는 바울의 딜레마는 자신의 딜레마가 아니길 바란다. 그에게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여 율법의 행함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하고 동시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샌더스는 필연적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다. 바울이 논리적으로 율법은 의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고 율법을 또한 행하라고 말하므로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은 샌더스 자신의 자기 딜레마라 할 것이다.

(2) 루터의 이해

루터는 8절을 주해하면서 성 어거스틴의 “율리아누스 반박론” 제 2권에 언급된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율법을 설명하고 있다.

123) Ibid., p. 75.

124) Ibid., p. 74.

“아직 이성을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린애는 판단의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고유한 의지 결정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그의 이성은 눈이 뜨이게 되며 계명이 주어지고 죄가 소생하게 된다. 그가 성인이 되면 죄가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때 그가 어렸을 때 가졌던 잠재의식이 살아나 대항해 싸워서 그가 패배를 당하여 저주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를 하여 구원을 받든지 그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¹²⁵⁾

루터는 어거스틴의 논리에 따라서 어린애 속에 잠재했던 탐욕이 발동하며 성인기에는 이 어린애 속에 잠재했던 모든 탐욕 등을 여지없이 폭로 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기를 어린 나무는 처음에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잎이 나고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고서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백 살이 되어서도 이해력에 있어서는 어린애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자들은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죄에 대하여 고발하는 율법을 알고 그 율법에 대한 경외심으로 불탄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당장에 자기 죄를 자백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오면 죄도 그들에게서 소생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다.¹²⁶⁾

위에서 보았듯이 샌더스는 율법이 죄의 작인이라고 말하고 이유를 율법이 정죄하고 죄를 촉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율법과 죄를 연관시키고 있고 그러나 죄를 하나님의 뜻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율법이 죄에 의해서 사용되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음 즉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다른 길을 내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루터는 율법을 어떻게 인간이 유아기에 있을 때에는 그의 부패성이 잠재 되어 있다가 율법이 그 부패성을 폭로한다고 말한다. 샌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과 죄를 연관시켜서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

125) Augustine, *Contra Julianum*, II, 4, 8, *Patrologia, Series Latina*, XLIV, 679 재인용, "Lectures on Roman" *Luther's Works*, vol 25, p. 336-7.

126) M. Luther, "Lectures on Romans," *Luther's Works*, vol 25,(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2), p. 338.

니 율법의 의도와는 달리 죄에 의해 이용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샌더스가 주장한 율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다른 법’을 언급하므로 율법과 죄의 적극적인 연관성을 바울이 부수고 있다고 주장하나, 루터는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17절의 주해에서 “죄는 은혜를 받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자만한 인간에게 겸손을 주기 위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의 자제를 위해서 영적 인간 안에 계속 남아 있다. 왜냐하면 죄를 추방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¹²⁷⁾ 샌더스는 17절의 ‘다른 법’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죄와 율법의 연관성을 깨트리므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종교 개혁주의적 입장을 거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루터는 이 문제 있어서 아주 단호함을 알 수 있다. 루터는 죄를 구원 받은 후에도 잔재하며 이런 죄인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남아있는 죄의 잔재는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한다고 말한다.

(3) 칼빈의 이해

칼빈은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에서 율법이 죄냐고 묻는 것에서 죄에 대한 책임이 율법에게 전가되어 있으므로 율법이 죄를 낳느냐? 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죄는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칼빈은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나 우둔하여 우리 자신의 부패를 알지 못하거나 자기도취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말이다.¹²⁸⁾

127) Ibid., p. 338-9.

128) J.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p.

그래서 모든 악은 죄와 육신의 부패로 기인한다고 칼빈은 8절 주석에서 밝히고 있다. 율법은 단지 악이 이용하는 기회로서, 악의 근인(the occasion of evil)이다 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여 더욱 광적으로 폭발하도록 하는 자극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으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전달해 주는 죄 에 대한 지식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없 으면 죄에 대한 지식이 묻혔을 것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이 깨닫지 못하던 때 를 언급하면서 죄가 자기에 대하여 또한 자기 안에서 죽은 때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이 없이 지낼 때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죄에 대하여 잠들어 있는 것과 같아서 거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칼빈은 10절을 주해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것은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방해 받지 않는 한, 주의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계명이 주어 졌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불러낸 그 인생의 길로 곤두박질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져다주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의 본질 과 우리 자신의 사악함을 구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결론 할 수 있 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가해주는 것은 하나의 불상사라는 점 이다. 이는 마치 불치명이 치료할 목적의 처방에 의해 오히려 급성 병으로 악화되어 버린 것과도 같다..... 그렇지만 율법이 그 자체의 본질상 우리 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패한 까닭에 율법의 저주를 초래한 다고 하는 취지는 유효하게 들어맞는다.¹²⁹⁾

칼빈은 바울이 여전히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 아닌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13절의 주해에서 바울은 사망이 율법으로부터 생겨난 것을 부인하고 있 다고 한다. 단지 사망은 죄가 기회를 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142-3.

129) Ibid., p. 165.

것이라고 대답하여 반론하고 있다. 이것은 율법의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그리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므로 인해서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 그 율법의 본래의 성질과 반대로 우리가 꾀멸에 이르게 된 점을 지적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인간의 부패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구절을 주해하고 있다. 죄가 율법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죄는 어디까지나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부패하여 인간의 하는 모든 행위가 그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출발함이니 모든 행위가 악하고 추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 다운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또한 전인적으로 타락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죄악 속으로 빠져 들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샌더스가 말하는 율법이 죄의 작인(agent)라고 말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부패하여 그 본성으로는 우둔하여 자신의 부패와 죄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율법을 죄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4) 소결론

이제까지 살핀 결과 루터와 칼빈은 율법이 죄의 작인으로 죄가 율법을 사용하였다는 샌더스의 견해와 상반된 견해를 진술하였다. 루터에게 율법은 어린 시절 즉 하나님의 의(율법)이 오기 전에 있던 죄의 잠재성을 폭로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런 이해는 2장에서도 언급한 칼빈과 루터의 차이점인 루터는 율법을 구원의 한 단계로 보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칼빈은 율법의 죄의 원인이 아님을 위의 인용에서 분명히 하고 또한 죄의 근원은 모두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므로 칼빈은 율법이 부패한 본성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부패한 본성의 지식을 알게 해준다고 말하므로 샌더스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본다. 이제 로마서 7:7-13을 주해해 보자.

바울은 로마서 7:7-13에서 율법이 죄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바울의 견해는 율법이 죄를 밝히 드러내므로 율법을 죄를 일으키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질문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단호한 대답을 하고 있다.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이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을 설명한다.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한다. 또한 바울인 3:20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밝히고 있다. 바울이 말하는 논지는 바로 율법이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임을 들어내므로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죄의 정죄아래 놓이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 존 스토틀트는 그의 책 로마서 강해 에서 율법이 죄냐? 라고 묻는 바울의 질문과 대답에서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¹³⁰⁾

첫째로,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율법으로는 죄악을 깨닫게 하고(롬 3:20), 죄의 중대성을 알게 하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정죄아래 놓임을 알게 한다(롬 7:7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다른 악한 생각들도 역시 율법이 인간의 부패의 정도를 알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율법은 죄를 일으킨다(롬 7:8절). 죄가 계명에 의해 우리를 자극 시키는 기지나 발판을 우리 안에 설치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간 안에 반제한성(contra-Suggestibility)을 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연스런 죄악된 성향이다. 그래서 율법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적대적인 죄가 바로 범인이다(롬 8:7).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것을 비난할 수 없다. 셋째로,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롬 7:9-11절).¹³¹⁾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제시한다. 13절에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이다. 이것은 율법이 죄를 이면 율법이 사망대한 책임이 있다는 당연한 논리의 귀결에 대한 반론이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단호한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이다. 율법은 죄를 야기 시키지 않는다. 율법은 오직 죄를 밝히 드러내고 정죄한다.

130) 존 스토틀트, 로마서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2), p. 262-5.

131) Ibid., p. 262-5.

또한 율법은 사망을 야기 시키지 않는다. 오직 죄가 사망을 불러온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이다. F. F. Bruce는 “여기서 악한은 죄이다. 죄가 기회를 잡은 것이다. 즉 율법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지만 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그른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죄가 잡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죄가 실제로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과 선을 거스리는 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¹³²⁾라고 결론짓고 있다.

4. 로마서 9:30-10:13¹³³⁾

¹³²⁾ F. F. Bruce, ~~탄델주석~~, 로마서, 권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 165.

¹³³⁾ 롬9:30- 10:13: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 샌더스의 이해

샌더스는 이 구절들을 9장 30f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한 가지 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³⁴⁾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과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샌더스가 지적한 문제는 바로 의를 좇지 못한 이방인들은 의를 받았고, 그 의는 분명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의에 이를 법을 좇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왜 그런가? 라고 질문하고는 이렇게 다시 답하고 있다. “그들은 의가 믿음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행위에 기초를 두는 것처럼 율법을 좇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이 이해를 다른 말로 해석하고 있다. “그 주장은 이스라엘이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좇았다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행하는 외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하여 -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율법을 이루어 의를 얻었을 것이다”¹³⁵⁾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샌더스는 로마서 9장 33절(“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을 언급하면서 ‘부딪히는 돌’은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것은 바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

¹³⁴⁾ E. P. Sanders,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p. 36. 로마서 9장 30f절의 문자적 번역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¹³⁵⁾ E. P. Sanders,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p. 36. 샌더스는 이스라엘이 의를 좇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이 추구한 의가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행위에 기초하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샌더스가 말하는 언약적 신율주의가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위로 지키지 않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에 기초하여 지켰다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왜 이 자신의 근본적인 전제를 뒤집고 있는가?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 다른 방식으로 즉 믿음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므로 행위를 강조하려 했으나 이것 역시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함이라”에 대한 설명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들은 그릇되게 의를 바라고 애썼고 그럼으로써 오직 자기 의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⁶⁾ 샌더스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그들은 율바로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샌더스는 계속해서 율법의 순종과 믿음과 분리해서 말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샌더스는 언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에서 잘못이 아니라 - 열정적으로 추구했고, 바울은 ‘열심’이라는 뜻에서 열정에 찬성한다. - 그 목표가 그릇되게 파악된 무지를 통해서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몰랐고 그래서 자신의 의를 좇았다(10:3). 그들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는 대조는 4절에 의하여 설명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이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려 함이다. 만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며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 미치는 의라면, 유대인이 열정적으로 좇은 유대교의 의는 율법을 지키기라는 기초 위에서 오직 유대인에게 미치는 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의”는 “개인이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께 대한 주장으로 제시하는 데 있는 자기 의”가 아니라 “유대인만 얻을 특권을 가진” 의를 뜻한다.¹³⁷⁾

샌더스는 이렇게 자기주장처럼 기독교적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추구하려는 목표 즉 “유대인만 얻을 특권을 가진 의”라고 표현하므로 이런 의를 바울이 잘못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모든 무지가 문제이지 그들이 추구한 의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장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샌더스는 계속해서 행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샌더스는 로마서 10:1-3절을 언급하면서 율법이 자기 의에 이르기 때문에 바

136) Ibid., p. 38.

137) Ibid., p. 38-9.

울이 율법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의견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열심'을 '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그것이 유대인의 명예라는 점에 동의한다. 물론 유대인은 그런 열심이 있는데도 잘못된 목표를 추구한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10:3에 나오는 텐아디안은 명백히 '그들 자신의' 의일 뿐 '나 자신의' 의가 아니다. 율법에 의하여 미치는 '그들 자신의' 의와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의' 명백히 '참된' 의다. 이 의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이 의는 믿음으로 오며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10:4).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의는 자기 의로 특징지워지지 않고, 율법을 따를 자에게 제한되는 의로 특징지워진다.¹³⁸⁾

여기에서도 샌더스는 열심과 죄를 동일하게 보지 않았고 열심을 유대인의 명예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3절(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에서 '자신의 의'를 자기 의로 특징지워지지 않고 율법을 따를 자에게 제한되는 의로 특징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다시 믿음과 율법을 구별하려하고 있다.

또한 샌더스는 로마서 10장 4절(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에서 '목표'나 '마침'으로 번역될 수 있는 텔로스를 중심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해석이 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율법을 끝내실 수 있고(마침), 또한 동시에 율법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의에 관하여 율법의 마침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텔로스에 대한 논쟁을 샌더스는 이렇게 언급하며 결론짓고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로마서 10:4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138) Ibid., p. 38.

지에 관하여(그리스도는 율법주의를 끝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자기 의로 왜곡된 율법이다) 혹은 율법이 끝나게 되는 자들에 관하여(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율법을 끝내이지 여전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소망을 가질 유대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다) 휘프너는 이 절도, 율법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의 대립을 뜻하는 것으로 읽는다. 그러나 이 절을 좀더 자연스럽게 읽으면 우리는 좀더 나은 뜻을 얻는다: 율법에 기초를 둔 의가 있고, 이 의에 관하여 모세는 “사람이 이를 행하여 그로 인하여 살리라”(레 18:5)고 썼다. 그러나 바울이 이어서 말하듯이, 성경은 다른 의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에 가까운 것이다. 139)

샌더스는 로마서 10장 4절에 텔로스를 이렇게 마침과 목표로 보고서 율법에 기초한 의가 있고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에 곤한 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의는 대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의¹⁴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을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의를 이야기 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 루터의 이해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없다. 다만 9장 33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양심이 항상 안정되고 의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혼란이나 공포가 없고 마음의 상태가 안정되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루터는 로마서 10장 2절을 언급하면서 10장의 요약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율법(여

139) Ibid., p. 39.

140) 로마서 9:30-10:13의 주장의 전체 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로 샌더스는 언급하고 있다. (1)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무지하여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만 미치는 의를 좇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2) 하나님의 의는 동일한 기초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3) 그 기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Ibid., 40.

기서는 ‘복음’을 뜻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부터만 온다는 점을 명시한다.” 고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는 자라고 언급하면서 이말은 근본적으로 신앙에 반대되는 말이며, 복종에 저항하는 말이며, 사람을 완고하게 만들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⁴¹⁾ 루터는 이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한 의지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한 의를 실천하므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루터는 경고하기를 “지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한다”는 말을 경건한 무지와 정신적인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하는 것이라는 데 주의 하라고 한다.

샌더스는 위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버림 받은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외적인 행위로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고, 만약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하여 샌더스의 말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율법을 이루어 의를 얻었을 것이라고¹⁴²⁾ 말하므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없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셨음을 제시하나 루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온다고 위에서 10장의 요약 부분에서 말하고 있다. 또한 샌더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단호하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므로 구원 후에 어떠한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샌더스는 믿음으로도 가능하나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지킴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샌더스는 율법의 순종

141) M. Luther, "Lectures on Romans" *Luther's Works*, vol 25,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2), p. 404.

142) E. P. Sanders,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p. 36.

과 믿음을 분리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샌더스의 시도는 그의 주석 곳곳에서 발견된다. 또한 텔로스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동시에 율법의 목표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역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받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행위를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다시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3) 칼빈의 이해

로마서 9:30절에서 칼빈은 바울이 이 구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하여 유대 민족이 어찌하여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⁴³⁾ 칼빈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던 이방인들이 구원에 초대받아 동참하고 의를 얻는 반면, 열심히 율법의 행위에 전력을 기울인 유대인들이 의의 상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리석음은 그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해서 아무도 이를 수 없는 지위에 오르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열심과 죄를 연관시켜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이라 할 것이다.¹⁴⁴⁾ 그러나 샌더스는 그들이 율법을 좇아 행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하여(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샌더스는 율법과 죄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칼빈은 율법과 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샌더스와 칼빈의 로마서 9장 30절의 주석은 다른 견해를 보여

143) J.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p. 217.

144) Ibid. p. 217.

주고 있다. 또한 샌더스가 주장하는 바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여 잘못이라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외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시도를 어리석은 시도라고 언급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며 율법의 행함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다.

로마서 9장 32절에서 칼빈은 바울이 믿음과 행위에서 나는 공로를 대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믿음과 공로는 전적으로 상반되며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자들이 버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 믿음이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며 아무도 구원을 바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¹⁴⁵⁾ 여기서도 샌더스가 믿음으로 구원 받음을 이야기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됨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는 반대되는 칼빈의 견해를 볼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칼빈의 주석은 단호하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을 바랄 수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파괴되며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필요가 없음에 이르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기독교의 모든 믿음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견해는 참으로 당연하고도 참된 결론이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칼빈은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대로 ‘마침’ 또는 ‘완성’이라는 단어의 적절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¹⁴⁶⁾ 칼빈은 율법을 지켜서 생명이 이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이 바로 우리를 다른 의 즉 믿음으로 얻는 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¹⁴⁷⁾ 칼빈은 루터와 다른 율법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가 말하기를 율법의 모든 교훈과 모든 명령, 모든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

145) Ibid., p. 217-8.

146) Ibid., p. 221.

147) Ibid., p. 221-2.

로 성경신학적인 폭넓은 율법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칼빈은 이 율법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려면 우리의 의를 벗어 던져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 즉 칼빈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이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알량한 의를 집어 던지라고 말한다. 이것은 샌더스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심은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율법을 크게 악용했다는 것이다. 율법이 도움을 주도록 즉 믿음으로 얻는 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율법의 핵심과 정신을 거부하고 죽은 문자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 문이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¹⁴⁸⁾

칼빈은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단어에 이중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¹⁴⁹⁾ 그 첫째는 율법은 모세가 가르친 교훈 전체를 의미하고 둘째는 그의 직분과 특별히 관련된 부분을 의미하면 명령, 상급 그리고 형벌 가운데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세는 그의 직무상 경건을 위한 참된 규칙을 백성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바로 회계와 믿음이라고 칼빈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회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합당한 생활 방식을 율법의 명령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상급과 죄인들에게 임할 형벌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말할 때 율법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하나님의 교훈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⁵⁰⁾

(4) 소결론

148) Ibid., p. 222.

149) Ibid., p. 223.

150) Ibid., p. 220-230.

로마서 9장 30절은 14절을 반복하는 바울의 질문이다.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의 대부분이 경건하지 못하며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31절)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는가? 바울의 대답은 그들이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울의 대답은 단호하게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행위로 의를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행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2절에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바울 서신 다른 곳에서는 ‘거리끼는 것’¹⁵¹⁾ 이라고 말하고 또 ‘십자가의 거치는 것’¹⁵²⁾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는 자에게는 거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만일 자신의 의로 즉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생존권인 의를 획득할 수 있다면 십자가가 불필요 하다. 바울의 질문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는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화 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증거이다. 하지만 이러한 굴욕적인 고백은 우리의 교만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대신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이다”¹⁵³⁾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9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며 이것은 이스라엘 안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설명한다(롬

151) 고린도전서 1:23.

152) 갈라디아서 5:11

153) 존 스토틀, 로마서 강해 (서울: IVP, 2002), p. 366.

9:6-13절). 또한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불의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른 뜻이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공휼을 베푸시는 것도 다른 사람을 강박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정의와는 상반됨이 없다고 변론한다(롬 9:14-18절). 그리고 샌더스가 다루고 있는 로마서 9장 30절 -33절에 와서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구원방식 대신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려는 잘못된 방법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부딪힐 것에 부딪혔다고 말하고 있다(롬 9:30-33). 존 머리(John Murray)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32절에서의 질문은 왜 이스라엘은 동일한 의에 이르지 못하였느냐는 것이다. 이런 고발은 본 서신에서 일찍이 제시된 것인데 특히 3:27-4:25절에서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한 가장 필요한 주석은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찰하는 것 외에는 없으리라. 그의 반론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칭의를 얻는 방법 및 이 칭의를 형성하는 의의 종류에 대해 품고 있던 개념을 말해 준다. 전적으로 그들은 오해 하고 있다.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¹⁵⁴⁾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크랜필드(C.E.B. Cranfield)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그들(이스라엘)의 비극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실제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율법의 참의미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¹⁵⁵⁾ 또한 바울은 10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 진지함과 열심이 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것도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종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갈 1:13, 빌 3:6).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열

154) 존 머리, 성경주석 뉴 인터내셔널, 로마서 하 권혁봉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p. 141.

155) C.E.B. Cranfield, ICC, 국제 비평주석 로마서 2 문전섭, 이영재 역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p. 346.

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아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롬 10:2). 그래서 그의 결론은 지식 없는 행위는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죄악이 된다는 것이다.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라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샌더스는 열심과 죄를 분리하여 생각하여 열심은 죄가 아니라고 하고 율법을 이루려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바라고 하니 이는 바울의 논지에서 벗어난 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그들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10:3을 보면 명백하게 틀린 말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3:8을 보면 더욱 명백하게 틀린 말임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은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샌더스 교수와 던 교수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기의 의에 집착했을 것이다."156)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텔로스가 되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텔로스는 '목표' 혹은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끝'이라는 뜻을 지닐 수 있다.157) 이것은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목표를 이루셨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완성 혹은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토트는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그리스도와 율법은 둘 다 객관적 실재이며, 둘 다 하나님의 계시이자 선물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지금, 그 분은 그러한 역할 면에서는 율법을 종결시키셨다. 일단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결정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모든 율법주의가 얼마나 부적절한가를 알게 된다."158) 스토트의 지적은 참으로 적절하다.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텔로스로서

156) 존 스토트, 로마서 강해 (서울: IVP, 2002), p. 373.

157) Ibid., p. 374.

158) Ibid., p. 375.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지금 율법의 행위를 다시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부적절 한가? 이것은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신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들의 행위로 증거하는 것과 같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의 마침(텔로스 노무)에 대해서 J. Roloff는 세 가지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¹⁵⁹⁾ 첫째는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간적인 의미에서 교체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바울 신학의 중심이 흐려질 수 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 아니라 율법의 요약이라는 것이다. 율법은 복음의 형식이며, 복음은 율법의 내용이라고 보고, 바울의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을 다만 유대인에 의하여 잘못 이해된 진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는 율법의 통치로부터 그리스도 계시로의 이행이 절대적인 변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울의 복음이 본질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복음이었다는 것은 무시하게 된다. 셋째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수고와 믿음, 즉 서로 다른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상충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라는 것이다. 율법의 길은 그 전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을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해야 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바울에게 율법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만 이로 말미암아 폭로된 인간의 정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루터와 칼빈, 샌더스의 로마서 9:30-10:13의 주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루터를 다루면서 샌더스를 그리고 칼빈을 다루면서 샌더스와 비교하

159) J. Roloff, *Neues Testament* (Neukirchen - 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p. 161f. 재인용, 장홍길, "율법의 종말이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p. 83-85.

여 보았다. 얼마나 샌더스의 견해가 종교개혁의 교리에 멀리 떨어져 있으며 다시 종교개혁이전의 시기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보았다. 샌더스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이 구원의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인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구별하고 또한 율법의 행위를 죄와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려는 시도이다. 그리하여 여전히 구원의 빛 아래 사는 성도들도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며,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복음과 율법이 대립함을 이야기하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부패함과 나약함을 드러내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이고, 칼빈 역시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복음 즉 언약으로 보았으나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그림자로 보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그의 주석에서 진술하고 있다. 칼빈은 루터에 비하여 더 넓게 율법을 보았고 또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샌더스의 경우는 ‘언약적 신율주의’는 유대인의 문헌을 연구한 결과 유대인들이 율법관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이제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 율법을 받고 지키는 칼빈의 생각과 흡사해 보일지 모르나, 샌더스의 견해는 율법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¹⁶⁰⁾ 이렇게 샌더스의 견해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려는 신학자와 설교자들에게 대단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위를 강조할 좋은 신학적 근거가 되었다. 한 신학자의 견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독소가 하나님의 교회에 퍼지는가? 그러나 율법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

160) 그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율법의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어려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인간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머물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필자의 견해)

를 말하면서 여전히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부적절한지 마치 불상 사나운 바지와 경건한 예복의 상의가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것과 같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지 않았음을 그들의 행위로 친히 증거하는 것이니 얼마나 큰 죄악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이다.

VI. 결 론

우리는 이제까지 루터와 칼빈 그리고 샌더스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를 살펴 보았다. 루터의 율법관은 복음과 율법의 구별과 대립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고 칼빈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는 넓은 의미의 율법법관으로 이해하면서 구원사적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샌더스는 율법을 유대교적 율법 이해인 ‘언약적 신율주의’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했다. 샌더스가 새로운 안목의 해석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견해는 율법을 지킴이 여전히 가능하고, 율법을 지킴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무름’을 위해 요구된다고 말하므로 신약시대에 언약아래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구원에 행위를 더하려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견해라고 할 것이다. 루터와 칼빈은 한목소리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며 또한 율법은 루터에게는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리고 복음의 빛을 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이야기 되고, 칼빈에게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로 이야기 되지만 칼빈과 루터는 동일하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율법을 지킴에서도 루터는 믿음을 갖은 후에 그의 율법을 지킴이 의무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따르게 된다고 하였고, 칼빈은 이보다 더 율법의 제 3용법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다. 즉 칼빈은 이제 구원 받은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으로 율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샌더스의 경우에는 율법의 제 3용도로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본래부터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부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름이 어렵다고만 언급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이 외적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잘못이나(종교개혁자들의 비판을 피하려는 듯한 구절들) 만약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의 언어로 그리스도와 관계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므로 종교개혁 이전의 신학 즉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샌더스의 신학적 시도는 행위를 강조하여 말하고자 하는 많은 설교자들과 다른 신학자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또한 행위를 강조하여 말하려는데 논리와 힘을 잃어 주었다. 그리하여 더욱 담대히 행위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또한 율법의 순종은 언약 안에 머무름의 기초가 될 수 없다(롬 3:19-31; 갈 2:16-21). 율법의 기능은 이것을 준수하여 구원에 이름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며(롬 3:20),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하심이다(롬 3:19).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고자 모든 족속을 불신앙 아래 가두시고, 죄의 권세 곧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하셨다.¹⁶¹⁾ 이렇게 하심은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범죄하므로(롬 3:23), 또한 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롬 3:20),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신 것이다(롬 3:22-24).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안에 머무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다(롬 5:1-2).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전가 받아 하나님 앞에서 생존권을 은혜로 얻은 것처럼 언약 아래 머무름도 즉 성화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다. 소요리 문답은 성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이

161) 서철원, 복음과 율법의 관계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p. 30-1.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인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소요리 문답 제 35문의 답) 성화(거룩하게 하심)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묘사하고 있다(살후 2:13).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백성의 생활 규범으로서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종교개혁의 진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것은 종교개혁자의 믿음과 확신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과 확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철원 교수의 지적처럼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는 구원사적 관점에서 바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 이해는 바로 기독교가 기독교로 남게 한다.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를 수 없다. 오직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뿐이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샌더스의 새로운 시도는 복음의 선명성을 흐리며 행위를 강조하므로 종교개혁 이전의 시기로 신학을 후퇴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 성경을 연구하여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좋으나 이것이 복음을 가리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1차 문헌

1) 칼빈 1차 문헌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36). translated and annotated by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II.

. *The Old Testament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3.

. *The Old Testament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and—the Lamentation. vol. IV.* by the Rev. John Owe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Galatians and Ephesia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8.

.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2) 루터 1차 문헌

Luther Martin. "Lectures on Galatians," *Luther's Work vol.26.*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3.

_____ .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er Ausgabe, 1883, 39.

_____ . "Lectures on Roman," *Luther's Work vol. 25.*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2.

_____ . "Against the Antinomians," *Luther's Work vol.47.*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2.

_____ . "탁상 담화" 루터선집 12. 지원용 편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6. _____ 「 _____ 」

_____ . "크리스천의 자유" 루터선집 5권 지원용편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6. _____ 「 _____ 」

_____ . "두 가지 종류의 의" 루터선집 5권 지원용편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6. _____ 「 _____ 」

_____ . "칭의에 관한 토론문" 루터선집 6권 지원용편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6. _____ 「 _____ 」

콜디아사, 1986.

3) 샌더스 1차 문헌

Sanders, E. P.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_____ .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_____ . *Pau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2. 2차 문헌

1) 단행본

Niesel Wilhelm. 칼빈의 신학사상, *The Theology of Calvin*, translated by Horlod Knight.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

방델 프랑수아.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

Bainton, R.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마틴 루터의 생애 이 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 『

Ebeling G.,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0.

Lohse Bernhard. 마틴 루터의 신학, 정병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Stott, J., 루마서 강해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 출판부(IVP), 2002.

. 갈라디아서 강해. 문인현, 김경신 공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75.

Murray, John. 성경주석 뉴인터내셔널, 로마서 상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Cranfield, C.E.B.. ICC, 국제비평주석, 로마서 2 문전섭, 이영재 역.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2000.

Bruce, F. F.. 틴텔주석, 로마서 권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Williamson, G. I., 소교리문답강해 최덕성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7

Cole, R.A., 틴텔 신약주석 갈라디아서 김효성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서철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_____ . 하나님의 나라 .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_____ . 심령신학 .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_____ . 신학서론 .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0.

_____ . 기독교론 .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0.

김세윤. 예수와 바울 . 서울: 도서출판제자, 1995.

_____ . 바울복음과 기원 . 서울: 엠마오, 1996.

서중석. 바울서신해석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최갑중. 바울연구 I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_____ . 성령과 율법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홍인규. 『바울의 율법과』 복음 .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차정식. 성경주석: 로마서 II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 논문 및 정기 간행물

김재성. “칼빈 신학의 구조적 특성(1). 신학정론. 11권 2호. 1993.

_____. “칼빈 신학의 구조적 특성(1). 신학정론. 11권 2호. 1994.

박영진.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의 논리에 관한 연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신약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6.

장홍길. “율법의 종말이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유창영. “칭의와 성화에 대한 율법의 역할 연구.” 서울: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임동진. “루터와 칼빈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연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곽윤관. “율법과 복음” 서울: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손규태. “M. Luther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 서울: 한국신학대학 대학원, 1972.